

‘희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 책 대 회



Robert A. Hardie (1865~1949)

“2007년은 하디 선교사가 주도했던 영적대각성(1903~1907) 100주년의 해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적 선언

1.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2.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3.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4.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5.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6.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으로 하나된 교회를 믿으며
7.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8.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희망 프로젝트’를 위한 정책대회

신경하 감독회장

‘희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책대회에 참석하신 지도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와 기회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감리교회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든든히 서가며,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제27회 총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열렸던 총회를 돌아보면 과열된 감독선거 분위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감독선거와 총회가 분리됨으로써 정책다운 정책을 다루었으며, 그 결과 ‘희망 프로젝트’가 공론화되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정책대회는 희망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이루어 가려는 기도와 의지를 모은 결과입니다.

‘희망 프로젝트’는 감리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부흥할 능력을 얻으며, 세상에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한 ‘희망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적 강점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웨슬리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영적 각성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무력감과 절망 속에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18세기 영국을 변화시켰듯이, 20세기 초에는 하디 선교사가 영적 새바람을 통해 부흥의 기초를 쌓았듯이, 우리는 21세기 벽두에 우리 감리교회가 앞장서서 새로운 부흥운동을 주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회와 감리교인들이 21세기 메도디스트운동을 재결단함으로써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처음 감리교인들의 모습, 그 뜨거움, 그 정직함,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사회의 질병을 고치려는 의지, 그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헌신을 닮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세상은 나의 교구”라는 전도열정이 전국 감리교회마다 전염되고,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쏘시개로 뜨겁게 하셔서 이 시간 정책대회를 통해 희망이 더욱 확산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호 12:6)

2005년 ⇨ 선교 120주년

2006년 ⇨ 세계감리교대회(WMC)

2007년 ⇨ 영적대각성(1903~1907) 100주년

3대 정책목표

1.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영적 대각성운동을 전개해 감리교회를 감리교회답게 한다.

2. 든든히 서 가는 감리교회

300만 총력전도운동의 결실화와 사회봉사를 통해 감리교회를 든든히 세워낸다.

3.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

세계감리교대회의 성공으로 한국 감리교회가 세계선교를 주도한다.

10대 실천과제

1. 선교 120주년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새 비전 창조
2. 300만 총력전도운동과 미자립교회의 자립기반 마련
3. 세계감리교대회 성공을 통한 세계선교강화
4. 미래의 희망-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
5. 사회선교와 봉사 및 복지 종합시스템 마련
6. 평신도 자원발굴과 참여 확대
7. 합리적인 본부행정과 정보전산화 및 출판홍보
8. 미래 목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실시
9. 은급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장기적 대안 마련
10. 기본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 청사진

머리글 _	3
일정표 _	6
순서담당 안내 _	7
조직표 _	8
생활안내 _	9
개회예배 _	10
저녁성회 _	13
아침기도회 _	14
결단예배 _	15
주제강연 _	17
‘희망 프로젝트 개요’ _	24

희망프로젝트 실천 방안 _ 35

본부 · 선교국 · 교육국 · 사회평신도국 · 사무국
· 홍보출판국 · 교육훈련원 · 비서실

프로그램별 분과 발제 _ 61

- 1-1 감리교 영성회복
- 1-2 희망투어
- 1-3 영남선교대회
- 2-1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감리교회
- 2-2 전도운동으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 2-3 상생목회로 목회자에게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 3-1 세계선교
- 3-2 민족과 역사를 향한 감리교회 지도력 강화
- 3-3 감리교회 사회봉사 일체화

일정표

현대성우리조트 ☎ 033)340-3000

시간	23일(목)	24일(금)
7		아침기도회
8		아침식사
9		본부 각 국 총무 희망 프로젝트 보고
10		프로그램별 2차 분과회의 (핵심과제별 토론 및 정리)
11		종합 토론과 발표
12		결단예배
1		점심식사 (체크 아웃 후)
2		<div> <p>표어 공모</p> <p>정책대회 기간 동안 ‘희망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슬로건(사례: “내 탓 이요”(가톨릭), “맑고 향기롭게”(조계종))과 표어를 공모합니다. 배부해 드린 양식에 작성하셔서 진행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심사하여 기독교타임즈와 「기독교세계」를 통해 발표하고 시상합니다.</p> </div>
3	등록 및 방배정	
4	개회예배	
5	강 연 “지금, 왜 희망 프로젝트인가?”	
6	프로그램별 1차 분과회의 (핵심과제별 발제 및 토의)	
7	저녁식사	
8		
9	저녁성회	

순서담당 안내

예배

	개회예배 11/23(목)	저녁성회 11/23(목)	아침기도회 11/24(금)	결단예배 11/24(금)
시간	15:00~16:00	19:30~21:30	07:00~07:30	11:30~12:00
사회	이원재 총무 (선교국)	엄마리 총무 (사회평신도국)	김광덕 총무 (홍보출판국)	김두범 총무 (교육국)
기도	방인순 총무 (동부연회)	강석봉 총무 (충청연회)	정용치 원장 (교육훈련원)	원형수 관리자 (호남선교연회)
성경봉독	안현아 청년 (청년연합회장)	-	-	-
설교	신경하 감독회장	김승현 감독 (동부연회)	강환호 감독 (충청연회)	김남철 감독 (동부연회)
특별기도	-	-	-	안충수 장로 (남선교회회장) 최은영 장로 (여선교회회장) 신동선 권사 (청장년회장)
축도	한정석 감독 (서울남연회)	이기복 감독 (남부연회)	박영준 감독 (중앙연회)	피정식 감독 (삼남연회)

강연

시 간	주 제	사 회	강 사
23일(목) 16:00~17:00	“지금, 왜 희망 프로젝트인가?”	이정원 총무 (중앙연회)	권오서 감독 (춘천중앙교회)

본부 각 국 총무 보고

시 간	제 목	사 회	발 표
24일(금) 08:30~09:30	본부 각 국 총무 희망프로젝트 보고	강철희 총무 (중부연회)	각 국 총무, 원장, 실장

종합 토론과 발표

시 간	제 목	사 회	발 표
24일(금) 10:30~11:30	종합 토론과 발표	이원재 총무 (선교국)	발표자 9명과 서기

조직표

- 대 회 장 : 신정하 감독회장
- 공동대회장 : 김기택 김승현 최승일 박영준 김남철 김일고 이기복 강환호 피정식 감독
- 준비위원장 : 한정석 감독
- 총 무 : 이원재 목사
- 협 동 총 무 : 본부 총무 및 연회 총무,
남 · 여 · 청장년 · 청년 · 교회학교 전국연합회장, 장로회 전국연합회장

실무팀

	총무팀	기획팀	행사팀	등록/생활팀	안내/봉사팀	홍보/기록팀
주요업무	업 무 총 관 리 예 산 관 리 물 품 관 리 동 원	행 사 기 획 자료집 준비 예 배 자 료	예 배 준 비 프로그램 진행 순서자 확인 찬 양 음 향	등 록 업 무 명 찰 관 리 숙 소 관 리 식 당 체 크 생 활 안 내	행사장관리 물 품 이 동 인 력 지 원 간 식, 음 료 보 건 업 무 등 록 지 원	취재및보도 녹 화, 녹 음 자 료 정 리 홍보및공지 전 산 지 원
담 당	태동화 신복현	송병구 손인선	이용운 김영주	장홍식	엄주선	조병철 곽 인

분과안내

* 9개 분과배정은 이름표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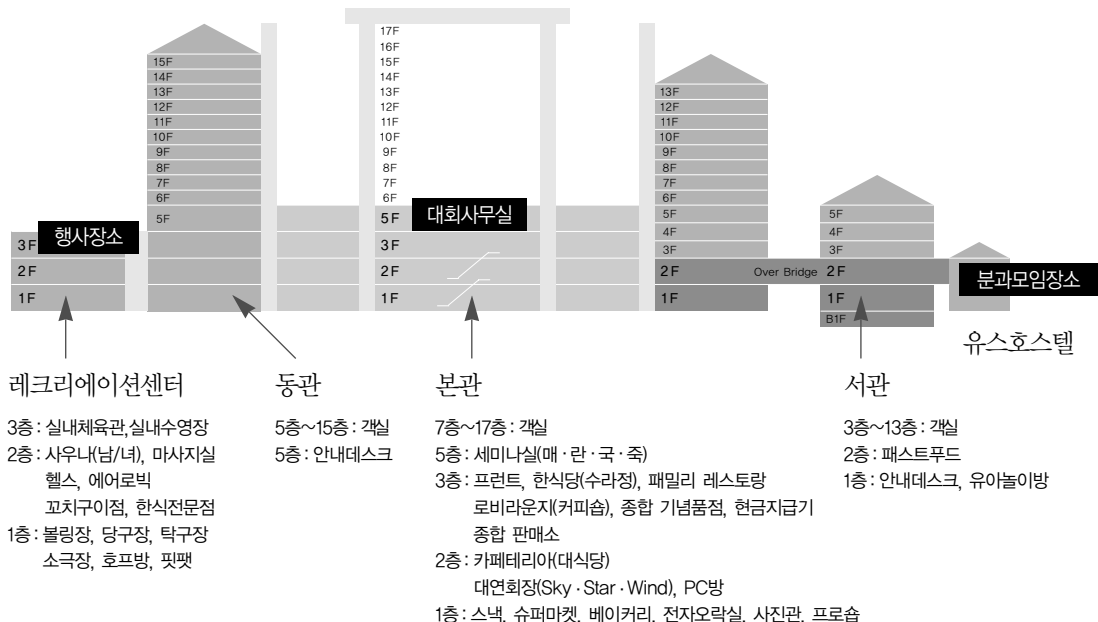
	분과명	리더(감독)	진행자(총무)	발제자	본부 실무부장
1-1	감리교 영성회복	강환호	정용치	임정덕	송병구
1-2	희망투어	김승현	김영동	유희용	엄주선
1-3	영남선교대회	피정식	진항섭	장석재	손인선
2-1	기도와 말씀으로	김일고	김광덕	전준구	이용운
2-2	전도운동으로	이기복	이현범	조재진	태동화
2-3	상생목회로	김기택	이용원	지성래	신복현
3-1	세계선교	한정석	이병우	이원재	장홍식
3-2	감리교 지도력	김남철	김두범	조경열	김영주
3-3	사회봉사일체화	박영준	엄마리	권영규	선철규

생활안내

대회 사무실은 본관5층 난실(세미나룸)에 있습니다. (본관 로비는 3층입니다.)

- ① 본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②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지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행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이름표를 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이름표를 착용하고 객실번호를 말씀하시면 사우나는 4,000원, 커피숍은 커피, 녹차, 주스, 사이다, 콜라를 3,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⑤ 식사는 자율배식이고, 장소는 대식당(카페테리아, 2층)입니다. 이름표를 착용하셔야 식사가 가능합니다.
- ⑥ 대부분의 행사는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있는 3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예배와 행사 진행 중에는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⑦ 대강당 로비에 온수와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집회가 끝난 후에 대강당 입구에서 간식을 나누어 드립니다.
- ⑧ 분과 모임 장소는 서관 옆 유스호스텔입니다. 2층에서 연결 됩니다.
- ⑨ 자료집에 성함을 기록하여 주시고 습득하신 자료집은 임시 사무실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⑩ 진행위원은 회색 T-셔츠를 착용하였습니다. 안내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⑪ 식수는 객실 수도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한 물입니다.
- ⑫ 방 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 배정 후 개인적인 이동은 가능합니다.

* 안내도



11월 23일 오후 3:00

주제 : “희망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집례/ 이원재 목사(선교국 총무)

경배와 찬양 / The Flowing 찬양단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전주 찬양단

예배의 부름 집례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
옵고,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경배 찬송 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다같이

1.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2.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웃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뢰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3.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4.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독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회 중 : 주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집례자 : 주께서 이르시길,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만 바라고 살라.(호 12:6)”

회 중 : 우리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집례자 : 희망이 없는 땅에 하나님의 희망을 실현하고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회 중 :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희망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사 9:1)

집례자 :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고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회 중 : 우리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죄의 고백과 간구

죄의 고백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통회하며 죄를 고백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다같이 :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아 주의 길을 따른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돌아보니 부끄러움만 마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지만, 세상의 탐욕에 물든 내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었지만 어두워진 내 귀는 말씀을 듣는 데 게을렀고,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일 바라보았지만 겸손과 희생의 길을 외면하고 오만과 안락의 길을 좇아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지만 나는 세상과 역사를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어 부족한 내 모습을 받아주시고, 회개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송 찬양단

용서의 말씀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죄의 용서를 구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1서 1:9)

회 중 : 우리가 용서 받았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삼위영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다같이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대표기도 방인순 목사(동부연회 총무)

기도송 찬양단

말씀과 찬양

성경봉독	호세아 12:6, 베드로전서 3:15	안현아(청년연합회장)
찬양	“기뻐 노래하라”, “사랑은 영원하리”	엘림중창단(삼천교회)
말씀	“희망의 삼위일체”	신경하 감독회장
찬송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같이

1. 나 이제 주님의 새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 주 안에 감추인 새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3.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4.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후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광고 진행부

정책대회를 위한 다짐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여, 우리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영적 각성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리교회가 되
게 하옵소서.

회 중 :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집례자 : 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희망의 정책, 희망 프로젝트 추
진을 위한 정책대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회 중 :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사, 이번 대회 동안 우리의 가슴이 희망으
로 물들게 하옵소서. 아멘.**

축도 한정석 감독(서울연회)

후주 찬양단

11월 23일 오후 7시30분

사회/ 엄마리 장로(사회평신도국 총무)

경배와 찬양 / The Flowing 찬양단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같이

1.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맘에 근심 쌓일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2.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4.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 강석봉 목사(충청연회 총무)

성경봉독 골로새서 1:24~25 사회자

특별찬양 “성도여 다함께” 글로리아 성가대(원주 태장교회)
지휘/ 권희천 반주/이경희

설교 “감리교회의 희망” 김승현 감독(중부연회)

광고 사회자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같이

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맘을 뉘 알아 주리요 내 맘을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일때 날 지켜 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축도 이기복 감독(남부연회)

11월 24일 오전 7시

사회/ 김광덕 목사(홍보출판국 총무)

경배와 찬양 / The Flowing 찬양단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다같이

1.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정용치 목사(교육훈련원 원장)

성경봉독 요한복음 21:15 사회자

설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강환호 감독(충청연회)

광고 사회자

축도 박영준 감독(중앙연회)

11월 24일 오전 11시30분

집례/ 김두범 목사(교육국 총무)

경배와 찬양 / The Flowing 찬양단

전주 찬양단

예배의 부름 집례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명하셨기에, 이 구원의 복된 소식과 희망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우리가 모여 정책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제 결단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 가슴 속에 희망을 가득 담고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희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53장 다같이

1.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3.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4. 주 앞에 나올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 오르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원형수 목사(호남선교연회 관리자)

성경봉독 시편 42:1~5 집례자

찬양 “거룩한 성” 김태영 교수

말씀 “하나님만 바라라” 김남철 감독(동부연회)

희망정책 실현을 위한 결단의 기도

- 1)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안충수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 2)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 최은영 장로(여선교회전국연합회장)
- 3)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 신동선 권사(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장)

*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다같이

1.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2.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3.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후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 결단과 파송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전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 61:1~2)

회 중 : 우리의 희망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집례자 :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롬 15:13)

회 중 :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쁨에 넘치고 내 혀는 즐거워 노래하며 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 것입니다.(행 2:26)

집례자 : 우리가 함께 나눈 희망의 정책이 나를 새롭게 하고, 감리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회 중 :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라라.(호 12:6) 아멘.

* 축도 피정식 감독(삼남연회)

* 는 일어섭니다.

지금, 왜 희망프로젝트인가?

권오서 감독(장단기발전위원회 위원장)

들어가는 말

망하는 회사는 특징이 있다. 은행이나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소위 ‘망하는 기업’은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상하 위계질서가 없다, 회의 시간이 길다, 임원교체가 빈번하다, 낯선 사람의 출입이 잦다, 사장이 역술인에 의존해서 경영한다”고 한다. 이는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는 결코 희망적일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존 맥스웰 목사는 <Today Matters>라는 책에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망치는 데는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성공이라는 것이 가능하겠어!’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대가를 치루지 않고 성공을 바란다, 어떤 사람은 운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기회가 생기면 성공한다고 생각하여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며, 인맥을 쌓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성공으로 착각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직종과 관련된 세미나에 열심히 참여하면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 개인만 그럴까? 교회와 교단도 마찬가지이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도 교단의 미래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1. 한국교회의 위기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위기에 처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조차 있다. 그런데 정말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월 말경 2005년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가 237만 3천 명이 늘어났다. 이를 분류해 보면 가톨릭이 219만 5천명, 불교가 40만 5천명, 원불교 신도가 4만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개신교는 어땠을까요? 14만 4천명이 줄어들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개신교는 급속도로 성장했었다. 당시 가톨릭의 성장이 74%였던 반면, 개신교는 110% 성장을 이루어냈다. 당시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70년에 한국 개신교 신자의 수가 390만이었으나 1980년에는 810만에 이르렀다.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성장을 이룬 개신교가 약 30년이 지난 지금 교세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미디어리서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1.3%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59.3%)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기교파·교회 중심의 이기주의(40.3%)’, ‘교회의 대형화·성장제일주의(23.9%)’, ‘자격이 부족한 목회자(12.6%)’, ‘비민주적 의사결정과 불투명한 재정운영(9.5%)’, ‘세습(5.8%)’을 꼽았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2. 한국교회의 문제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2004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라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의 한국 개신교는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공신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은 호감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왜 호감을 주지 못하는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략 8가지가 있다. 첫째, 사회봉사 및 이웃 사랑의 실천에 인색하다. 둘째, 전도활동이 지나쳐서 혐오감을 준다. 셋째, 헌금을 너무 강조하여 부담을 준다. 넷째 타종교를 비방하는 등 너무 배타적이다. 다섯째, 참 진리 추구보다는 교세확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여섯째, 교파분열, 교회분열이 심하다. 일곱째, 물량주의에 너무 몰두해 있다. 여덟째 도덕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많다.

개신교 가운데 감리교에 대한 선호도는 7등이다. 하나의 교회라는 점, 다양한 영성을 포괄하는 웨슬리 성화신학과 훌륭한 신앙 유산, 특별히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전통을 가진 교단으로, 구조적으로는 지방자치행정구조와 동일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호도에서 7등 밖에 못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3. 희망프로젝트의 배경과 내용

이런 상황 속에서 신경하 감독회장께서는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열 가지 실천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다. 그 열 가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선교 120주년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새 비전 창조 ② 300만 총력 전도운동과 미자립교회의 자립기반 마련 ③ 세계감리교대회 성공을 통한 세계선교강화 ④ 미래의 희망 - ‘청소년 평화세상 만들기’ 운동 ⑤ 사회선교와 봉사 및 복지 종합시스템 마련 ⑥ 평신도 자원발굴과 참여 확대 ⑦ 합리적인 본부행정과 정보전산화 및 출판 홍보 ⑧ 미래 목회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실시 ⑨ 은급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장기적 대안 마련 ⑩ 기본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 청사진. 이것이 신경하 감독회장께서 제시했던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한 열 가지 실천과제이다. 이것을 보다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희망프로젝트”이다.

“희망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한다.

1) 첫째,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이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성의 회복이다. 웨슬리안인 우리는 웨슬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웨슬리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경건주의적 영성과 복음을 생활화하는 실천적 영성이다. 우리 감리교인은 이러한 웨슬리의 영성을 회복함으로써, 웨슬리가 영국사회를 변화시킨 것처럼,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며,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웨슬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여 먼저 그분의 설교를 읽고, 그분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웨슬리 영성수련학교를 상설 운영함으로써,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웨슬리의 성화신학에 근거한 경건생활을 생활화해야 한다.

웨슬리의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사회 전반에 걸쳐 지도자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감리교회도 똑같이 지도자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지도자의 부재를 경험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감리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감독 선출 방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투표로 감독선거를 하다 보니, 감독선거에 출마하는 목회자들이 선거에 집중하느라, 개 교회 목회에 전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금품선거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경우도 있다. 분명, 사회

보다 더 깨끗하게 치러져야 할 감독선거가 그렇지 못함으로써 설사 감독에 당선되더라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둘째, 인식의 문제이다. 사실 이것이 지도자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완벽한 지도자상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지도자도 완벽할 수는 없다. 나에게 있어서 100%맞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는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떻게 전환이 가능할까?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그렇다.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분명 지도자 스스로도 지도자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지도자를 불신하고 협조하지 않는 한 결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어느 단체나 기관이든 지도자는 매우 중요하다.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단체나 기관의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지도자를 세우느냐, 어떠한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단기발전위원회’에서는 감리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이미지를 “신실한 사람들(Faithful Members, F.M)”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의 과정 중에 “Promise Keepers(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도 거론이 되었지만, 이미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도용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비판도 있을 것 같아, 좀 더 넓고 깊은 의미에서 “신실한 사람들”로 정하게 되었다. “신실한 사람들”이란 Methodist의 영성 실천을 표현한 것으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믿을만한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 되자는 결의를 담은 표현이다. 감독회장을 비롯해 모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회개운동과 함께 감리교회의 영적 각성의 불을 일으키고, 교회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천명하는 교회와 목회 실천 강령 등으로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나감으로써,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 윤리강령을 만들고,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만드는 것도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가 바로 “신실한 사람들”이 되고자 함이다.

2) 둘째,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이다.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는 모든 교회가 부흥을 이루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사도 행전에 언급되는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 이제 한국 감리교회가 붙잡아야 할 원리가 있다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어느 특정 교회만 부흥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안타까운 것은 특정지역에 있는 교회만이 부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목회자 수급 불균형”이다. 목회자 수급 불균형은 목회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목회자 과잉공급현상은 결국 미자립 교회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리회 산하 전국 5천 4백 89교회 중 41%가 미자립 상태로 밝혀졌다.

목회자 수급 불균형이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목회자들이 과잉 공급하다보면 임지가 없는 관계로 학연이 중시되면서 일종의 정치라인이 형성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감리교의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희망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각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감리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고자 한다. 미자립 교회의 증가는 감리교 전체를 침체의 수렁으로 몰고 갈 것이다.

“희망프로젝트”가 제안하는 ‘상생네트워크 형성’ 이라든가, ‘희망목회 포럼’은 더불어 세워져가는 감리교단을 만들어 가는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상생목회운동은 개체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감리교회’ 상을 개발하는 운동이다. 감리교회는 본래 감독을 정점으로 연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교회로,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감리교회’ 한 교회를 섬기는 공동목회정신이 감리교회의 정신이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하나는 자기 목회의 패러다임을 발견함으로 자기 목회를 긍정하게 하고, 나아가 목회패러다임 별로 모델교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연대하게 하는 운동이다. 다양한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 상생네트워크를 유도하며, 도시-농촌·섬교회, 자립-미자립교회, 작은 교회-작은 교회를 연결한다. 또한 뜻있는 교회를 묶어 기관목회 지원, 소외자 선교를 지원하도록 하며, 미자립 교회 극복 M-프로젝트, 농산물 직거래 등 모범 사례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희망목회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모범적인 목회패러다임을 연구, 개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한다면 꼭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다. 희망목회포럼을 통해서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목회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목회 패러다임을 연구하며, 패러다임별로 모델교회와 목회를 선정하여 홍보할 것이다. 또한 패러다임별로 자발적으로 연계하여 희망목회포럼으로 정착시켜 나가며, 감리교회 목회 패러다임으로 특성화시킬 것이다.

이외에도 전략적인 교회개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몇몇 장로교회에서는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키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제 우리도 본부에서 기금을 확보하여 도시개발지역에 종교 부지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시할 때이다. 또한 지방선교부에서도 개척취약지역을 파악해서 개척후보자에게 그 지역에 개척하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셋째,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이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와 성공적 개최는 그야말로 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대회와 성공적 개최는 이제 한국 감리교회가 세계선교를 주도해 나갈 만한 역량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한국 감리교회가 세계선교를 주도해나가기 위해서는 세계감리교협의회와 132개국 세계감리교회와 선교적으로 연대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며, 세계 감리교 청년들을 초청하여 교류하며 국제적 지도력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 세계 선교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사역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남선교회 연합회, 여선교회 연합회, 청장년 선교 연합회 등이 조직되어 있다.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아가야 할 한국 감리교회를 생각할 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하나로 집약시킬 수만 있다면, 감리교야말로 여타 다른 교단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단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이다. 행정구역에 따라 조직이 되어 있고, 하나의 교단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얼마든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로 인해 한국 교계를 주도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희망프로젝트”는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이미 말씀드린 ‘전국적 사회 봉사단’을 조직하고, 지역사회 사회봉사 센터인 ‘희망의 집’, 청장년들이 이미 실행 중에 있는 집 지어 주기 운동인 ‘희망의 보금자리 운동’ 등을 펼칠 것이다. 이미 중부연회는 ‘웨슬리 사회봉사단’ 자원봉사자 운동으로 감리교회를 희망으로 만들어 가는 사업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서울연회도 발 빠르게 동참하여 금번 연회감독 이취임 예배 화환을 “희망의 쌀”로 바꾸는 운동으로 일시에 2천만 원을 모아 서울 쪽방인들에게 나누는 희망실천으로 신선한 모범이 되어 주었다. 본부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외국인주민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음은 모두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는 세계를 품고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교단의 경우,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가 파송 되어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는 이슬람 문화권과 선교활동이 쉽지 않은 불교 문화권에 들어가 그곳에서 선교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한 편, 감리교단 내에서는 평신도 선교사 활동이 매우 미흡하다.

결론

우리는 이제까지 감리교단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렇다.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변해야 할 존재가 있다면, 그것도 가장 먼저 변해야 할 존재가 있다면, 우리들 자신이다. 목회자 개개인이 변화되어야 한다. 평신도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개체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은 이상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혹시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는 “희망프로젝트”가 단순히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자세로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다. 불가능은 포기한 사람의 것이다. 실패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것이다. 모두가 힘을 합치면 달라질 수 있다. 모두가 뜻을 모으면 우리 감리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감리교 ‘희망 프로젝트’ 를 제안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영적으로 쇠퇴하고, 기독교 선교가 힘을 잃은 오늘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호 12:6)를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WMC를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한국감리교회의 저력을 세계감리교회에 널리 알렸다면,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복음전도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보고 자료는 개신교회의 교인수 14만 4천명 감소라는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타 종교의 성장과 달리 개신교회의 쇠퇴는 교회의 전도방식과 열심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는 감리교회의 의지가 담긴 ‘희망 프로젝트’ 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부흥할 능력을 얻으며, 세상에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한 ‘희망 전략’ 입니다. 우리는 감리교회의 브랜드 강화와 이미지 개선을 통해 세상을 더욱 바르게 섬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희망 프로젝트’ 는 장단기발전위원회와 본부 정책협의회를 거쳐 본부 임원회가 입안하였습니다. 10개 연회와 평신도 단체와 협의를 거쳤고, 제26회 총회실행부회의에서 인준되었습니다. 이제 제27회 총회의 결의를 통해 힘있게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진운동본부 조직과 예산마련 그리고 감리교회 전체의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5,692 교회와 150만 8,434명의 감리교인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모읍시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위해 우리가 먼저 희망의 발전소와 용광로가 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뜨거운 가슴으로 이 시대에 영혼구원과 민족구원을 위한 가장 중심된 교회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1. 비전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2. 주제성구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호 12:6)

3. 감리교인 신앙적 특징 ‘신실한 사람들 faithful members(FM)’

4. 목적

감리교회는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감리교회는 역사를 선도하는 시대를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재 감리교회는 시대와 세상에 대한 주도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외적 환경과 상황은 기독교인의 감소, 비기독교인의 교회에 대한 반감의 증가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것은 교회가 신뢰를 잃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는 훌륭한 장점으로 가득합니다.

감리교회는 다른 교파와 달리 하나의 교회요, 유기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공동체적인 평신도가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 유산과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웨슬리 영성회복을 통해 그 뜨거움과 경건함을 회복한다면 이 시대에서 우리를 통해 교회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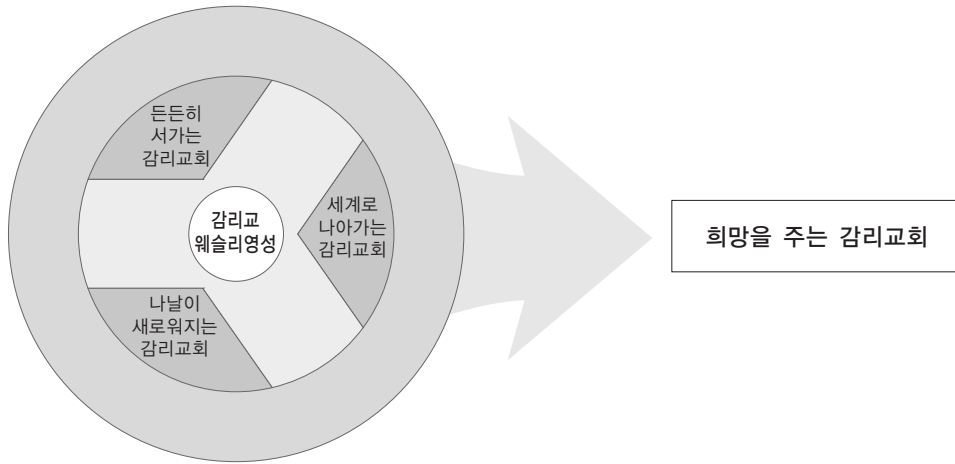
감리교회의 에너지를 희망으로 모아냅시다.

그러나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감리교회의 비전이 구체적이지 못하였고 한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감리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열정과 비판을 하나로 묶어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시다. 지도자들과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감리교회, 희망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감리교회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신실함을 회복함으로써 전체 기독교의 이미지를 갱신하고 민족과 사회를 향해 강력한 희망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일과성 행사가 아닌 보다 영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보다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5. 3대 정책과제



1)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이것은 감리교회가 영적각성과 실천으로 갱신되는 영성운동입니다. 감독회장을 비롯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감리교회의 영적각성의 불을 일으키고, 모든 교인들이 감리교인다운 신실한 생활에 참여하며, 영남지역에서 전도의 열기를 불어 넣으려는 것입니다.

2)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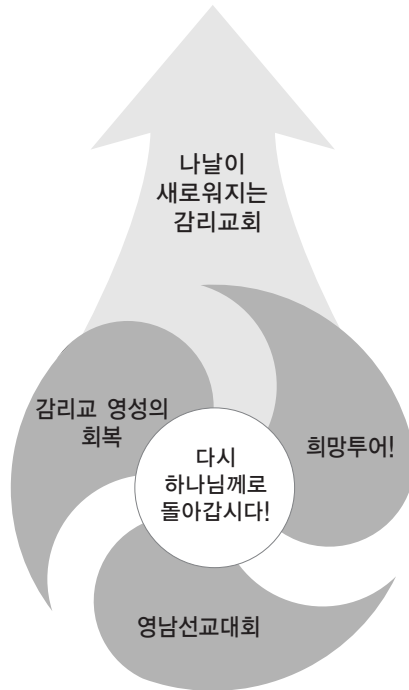
이것은 감리교회가 든든히 서 가기 위한 교회부흥운동입니다. 전도운동과 교회성장, 개체 교회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서로 승리하는 감리교 동역운동입니다. 목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좌절과 패배의식에 빠진 목회현장에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3)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

이것은 감리교회가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교전략입니다. WMC의 성공적 개척을 디딤돌로 삼아 복음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개별적인 사회봉사와 복지사업을 감리교회 전체 성과로 한데 묶어내어 감리교회 봉사운동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6. 개요

I.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1) 감리교 영성의 회복!

감리교회다운 신앙정체성을 강화하고, 웨슬리 영성으로 다시 무장합니다.

첫째, 웨슬리영성의 회복으로 감리교회 영성을 회복한다.

- ① 첫 출발로 정책대회(11월 23~24일)를 열고 웨슬리 영성회복과 희망 프로젝트를 결의한다. 이어서 연회별로 임원대회를 열고 추진을 확산한다.
- ② 2007년 영적대각성운동 100주년을 맞아 영성회복과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 ③ 웨슬리 영성 수련학교를 상설화한다.

둘째, 감리교인 생활실천으로 영성과 경건생활을 회복한다.

- ①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과 실천 :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감리교 목회자의 경건과 품격을 높이고 성직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 ② 감리교회 사회규약 제정과 실천 :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신앙적 사회윤리를 정립하고, 한국감리교회의 입장을 천명한다.

〈보기〉 양극화, 농촌과 생명농업, 인구, 고령화, 핵, 창조질서보전과 환경, 가정, 이혼, 성(性), 생명윤리, 노동, 직업의식, 부(富), 빈부격차, 경제윤리, 재산사회 환원, 이주민, 이중문화(혼혈), 사이버 윤리, 오락, 도박, 사형제도 등.

- ③ 감리교인 생활수칙 제정과 실천 : 감리교인은 한마디로 신실한 사람이다. 존 웨슬리의 성화신학에 따라 모든 감리교인이 경건하고 복되게 살려는 생활운동이다. 이것을 감리교인들의 교회, 가정, 사회생활에서 정착시켜 나간다.

셋째, 모든 교회가 함께 실천한다.

- ① 감리교회의 모든 교육과 수련과정을 웨슬리 영성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원화한다.

〈보기〉 신학교육, 정회원 교육, 워크 투 엠마우스(연수원), 개체교회 및 지방 부흥회, 사경회, 평신도 대학, 수련목 및 준회원 영성훈련 등

- ② 모든 감리교회가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라는 통일된 엠블럼을 사용한다. 교회가 같은 운동에 참여하는 뜻으로 동일한 현수막과 용품을 사용한다.

2) 희망 투어!

감독회장이 앞장서서 전국의 감리교회를 심방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희망투어를 실시합니다.

첫째, 감독회장과 연회감독 등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력을 회복하고 감리교회를 통합하는 기회로 삼는다. 특히 소외자를 찾아가고 모범적인 감리교회의 위상과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둘째, 희망투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된 감리교회의 사회복지, 지역사회 봉사, 소외자 선교 등을 서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감리교회를 방문하고 모범적인 웨슬리안을 격려하고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선교사례를 발굴하고 좌절에 빠진 목회현장을 심방하여 희망을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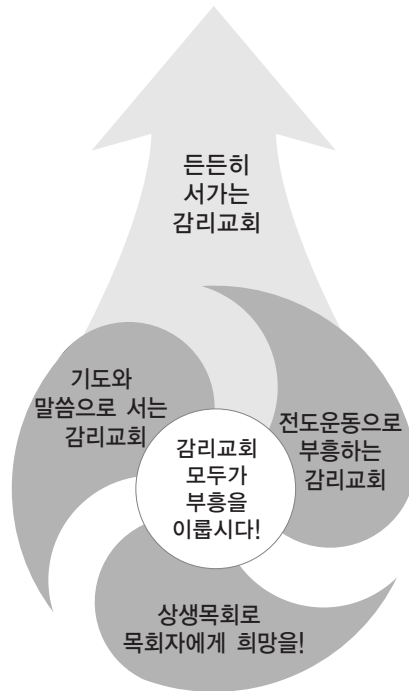
셋째, 이를 통해 감리교회가 지닌 무한한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교류하여 감리교회 전체의 것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3) 영남선교대회!

호남선교대회의 전도열기를 이어 받아 영남지역에서 감리교 전도의 불을 일으킵니다.

영남지역은 복음화율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다. 2004년 호남선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어 영남지역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 감리교회의 영남지역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높이고 모든 전도 역량을 영남지역에 투입하여 감리교회의 삼남지역 선교를 극대화 하려는 것이다.

II.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 감리교회 모두가 부흥을 이룬다!



1)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감리교회!

감리교회 부흥의 본질적 동력을 회복합시다.

첫째,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 - 사도행전의 원리를 목회에 적용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행 6:4)”

둘째, 웨슬리의 영성을 기초로 교회력을 따른 목회와 신앙교육을 한다.

- ① 교회력과 목회일정에 따라 영적각성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보기〉 2006년 강림절, 2007년 신년예배, 주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오순절, 성령강림절, 감사절, 존 웨슬리 회심주간.

- ② 교회와 속회, 개인이 영적각성 실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 공급한다.

셋째, 모든 교회가 한 말씀으로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감리교회를 이루어 간다.

- ① 감리교인을 양육하는 웨슬리 영성훈련체계가 필요하다.

〈보기〉 장기 훈련프로그램, 단기집중 훈련프로그램

- ②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양육시스템을 고안하고 실시한다.

- ③ 감리교인 필독서 운동(웨슬리 라이브러리), 새벽 Q.T 교재를 준비한다.

2) 전도운동으로 부흥하는 감리교회!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계승하여 개체교회 전도운동으로 뿌리내립니다.

첫째, 개체교회 전도운동을 강화한다.

- ① 전도-“One Plus One(1+1)” 배가운동 :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가정이 한 가정을, 한 속회가 한 속회를 배가하는 운동이다.
- ② 개체 교회마다 전도대를 조직하고, 전도자를 훈련하며(웨슬리 전도학교 등), 모범 전도인을 격려한다.
- ③ 감리교 전도법(섬김의 전도)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 ④ 감리교회 전도지를 보급하고, 지방차원의 연합 전도지를 제작하여 하나의 감리교회를 구현한다.

둘째, 현실에 맞는 감리교 소그룹 운동을 활성화한다.

- ① 웨슬리 부흥 운동의 기초인 속회전통을 회복한다.
- ② 개체교회 특성에 맞는 속회 운영을 연구하고, 지도자 훈련을 강화한다.
- ③ 모범적인 속회 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모범으로 삼는다.
- ④ 속회공과와 교육 방법 등을 개발한다.

셋째, 전략적 개척교회 설립과 차세대 교인을 육성한다.

- ① 본부, 연회, 지방회는 서로 연계하여 “미자립 교회 자립 지원 및 교회 개척기금”을 제도화 하고, 정책적인 개척후보지 마련과 개척후보자를 훈련한다.
- ② 차세대 전도를 위한 캠퍼스 선교, 대안학교, 스포츠 선교, 영어연수 등을 개발한다. 이를 위한 전문 교역자를 양성한다.
- ③ 청년 리더십의 비전을 키우고, 국제적으로 세계감리교회와 상호 교류한다.

3) 상생목회로 목회자에게 희망을!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여 모두가 승리하고 감사하는 상생의 풍토를 만들어 나가려는 것입니다.

첫째, 개체교회들이 서로 연대하여 서로 보완하고 승리하려는 것이다.

- ① 다양한 상생모델을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 상생네트워크를 유도한다.
- ② 도시-농촌 · 섬교회, 자립-미자립 교회, 작은교회-작은교회를 연결한다.
- ③ 뜻있는 교회를 묶어 기관목회 지원, 소외자 선교를 지원한다.
- ④ 미자립 교회 극복 M-프로젝트, 농산물 직거래 등 모범 사례를 발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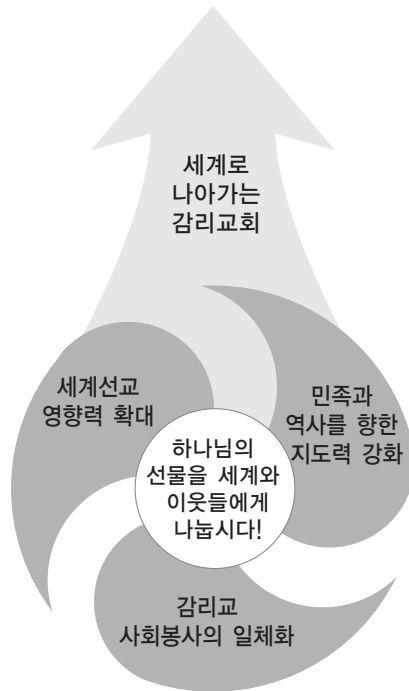
둘째, 희망목회 포럼을 연다.

- ①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목회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목회 패러다임을 연구한다.
- ② 패러다임별로 모델교회와 목회를 선정하여 홍보한다.
- ③ 패러다임별로 자발적으로 연계하여 희망목회 포럼으로 정착시켜 나간다.
- ④ 감리교회 목회 패러다임으로 특성화한다.

셋째, 희망교회 운동을 전개한다.

- ① 감리교회의 표준 모델을 정하여 일반화 시켜 나간다.
- ② 전통과 비전을 조화시킨 감리교회 상(像)을 만든다.
 - 전도하는 감리교회
 - 신실한 사람들인 감리교인
 - 사회봉사에 앞장서는 교회
 - 지역사회 리더십을 키우는 교회
 - 차세대(어린이와 청소년)에 투자하는 교회
 - 소외자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
 -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과 회복에 힘쓰는 교회
- ③ 교회와 사회 간의 신뢰를 형성하여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발전시켜 나간다.
 - 건물 중심 교회에서 공동체 중심 교회로
 - 교인 중심 교회에서 주민 친화적 교회로
 - 사람 중심 교회에서 자연과 환경 친화적 교회로
 - 교리 중심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을 담은 교회로
 - 제도 중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자유하는 교회로

III.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 : 하나님의 선물을 세계와 이웃들에게 나눕시다.



1) 세계선교 영향력 확대!

전략적으로 세계선교를 주도합니다.

첫째,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의 성과와 유산을 선교로 확대해 나간다.

- ① WMC의 성과와 역량을 축적한다.

〈보기〉 대회화보집, 연구물, 영상물, 기타자료

- ② 아시아감리교협의회(AMC)와 아시아감독교회의(FAMB)에서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적극 협력한다.
- ③ 세계감리교협의회와 132개국 세계감리교회와 선교적으로 연대하며 네트워크를 갖는다.
- ④ 세계 감리교 청년들을 초청하여 교류하며 국제적 지도력을 개발한다.

둘째, 세계선교의 발전을 모색한다.

- ① 평신도선교사, 전문선교사(의료, 기술, 컴퓨터, 스포츠, 한글교육, 사회봉사 등) 제도를 활성화 한다.

- ②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의 감리교회와 선교협정을 제도화하고, 공동선교와 현지교회와 공동사역을 개발한다.
- ③ 고려인, 조선족 등 해외 한인 공동체에 대한 선교를 활성화 한다.
- ④ 국내 외국인근로자 선교를 지원하고, 정착한 이주민 가정과 자녀들, 이중문화 가정을 위한 선교전략을 세운다.
- ⑤ 효율적인 선교사 관리 및 후원 시스템, 선교사순환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한다.

2) 민족과 역사를 향한 감리교회 지도력 강화!

이 시대에 대한 교회의 소명을 감당합니다.

첫째,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감리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 ①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을 확대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청년인재를 양성한다.
- ② 전통적인 교회연합운동과 지역교회협의체에서 감리교회의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감리교회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평신도 DB를 구성하고, 다양한 기독교선교단체와 시민사회운동과 사안에 따라 연대한다.
- ④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한 감리교회의 구체적 리더십을 선발하고, 양성한다.
- ⑤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의 청의론 합의서명에 따라 그 정신을 계승하여 국내 가톨릭교회와 루터교회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한다.

둘째,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한다.

- ① 서부연합을 중심으로 북한교회(KFC)에 대한 교류와 협력, 신학교육지원, 직접, 간접 선교를 지속한다.
- ② 민족의 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해 세계감리교회와 네트워크를 갖고 협력한다.
- ③ 새터민(탈북자)의 삶을 지원하고, 신앙공동체와 생활공동체를 후원하며, 남한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협력한다.
- ④ 평화통일을 위해 타 교단과 세계교회협의회(WCC), 국내외 NGO 단체와 연대를 모색하여 감리교회의 역량을 키워간다.

3) 감리교회 사회봉사의 일체화!

동일한 방향과 네트워크로 감리교회 전체가 전국적인 범위에서 사회봉사를 촉진합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감리교사회봉사단을 조직한다.

- ① 이미 개체교회별로 전개되어 온 사회봉사사업을 감리교회 전체의 조직체계에 따라

하나로 묶는다.

- ② 연회와 지방회가 주체가 되는 조직이다. 연회와 지방별로 조직을 체계화한다.
- ③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봉사활동을 '감리교사회봉사단' 이란 이름으로 통합하여 실행한다.
- ④ 감리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훈련하며, 네트워크화 한다.
- ⑤ 본부는 감독회장 산하에 두고, '감리교사회봉사단' 이란 이름으로 법인화하며, 연차 대회, 자원봉사자학교, 사회봉사대학 등을 운영한다.

둘째, 감리교회 사회봉사활동의 성과를 전체 감리교회로 종합한다.

- ① 감리교사회봉사단 활동은 교회와 지역에 따라 전개하되, 조직과 사업통계는 감리교회 전체의 성과로 수렴하여, 전체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높인다.
- ② 평신도들의 리더십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를 주는 지도력으로 발전시킨다.
- ③ 공통적인 규약인 감리교사회봉사단 정관과 비전선언문을 작성한다.
- ④ 개체교회와 지방 사회봉사단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신뢰를 형성하며,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간다.
- ⑤ 지역봉사센터, 사회안전망시스템, 국내외 재난구호기관에 참여하며, 지역 행정기구와 연계하여 활동한다.

셋째, '희망의 집' , '희망의 보금자리' 운동을 실천한다.

- ① 희망의 집- 감리교회가 벌여 온 사회봉사 시설과 복지기관에 감리교 인증을 부여하는 일이다. 이를 '희망의 집' 이라 한다.
- ② 기존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화 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전체 감리교회의 성과를 축적한다.
- ③ 희망의 보금자리- 지역의 가난한 이웃에게 집을 지어주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킨다.
- ④ 이 일을 통해 감리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를 높여나간다.

희망프로젝트 실천 방안

본부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사무국

홍보출판국

교육훈련원

비서실

본부

1. 희망 프로젝트 추진 배경

기독교대한 감리회는 신정하 감독회장의 새로운 지도력 하에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될 것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오늘 감리교회가 처한 영적, 선교적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영적인 각성과 감리교 본연의 정체성 회복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전도와 봉사, 선교에 전심전력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감리교회를 이루어 가자는 것이다.

희망 프로젝트는 감독회장의 비전과 정책 공약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2006년 10월 말 입법의회에서 장단기 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난 1년여 동안의 작업과 토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것은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3대 정책방향, 곧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의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사업들을 담고 있다. 이것은 10대 정책 과제와 함께 제시되었는데, 후자가 주로 본부 차원에서 구체화되었다면, 희망 프로젝트는 본부와 현장목회자를 아우르면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연회총무들, 평신도 단체장들과도 협의 과정을 거쳤고, 총회실행위원회와 27회 총회를 통하여 결의되고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희망 프로젝트는 감독회장의 후반부 2년 임기에 맞추어 준비된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들도 있지만 (이것은 선교백서를 통해 장기적 비전과 정책이 제시될 것이다), 주로 단기성 시행과제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따라서, 희망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2007년도 한 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희망 프로젝트는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본부 전체가 감독회장을 중심으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각 연회와 적극 협력하면서 함께 추진해 가야 할 일이다. 물론, 선교국에서 주무를 하겠지만, 이것은 일을 조직화하고 조정하며 통일화시키는 역할을 주로 감당할 것이다. 본부 각국과 연회 총무들이 공동으로 추진본부장이 되어 함께 매진해 나갈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미래가 밝게 될 것이다.

2. 주요 내용과 실천 방안

희망 프로젝트는 이러한 영적 각성과 정체성 회복 운동을 구체화 시켜나가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될 것이다.

먼저, 영적 각성운동을 전개하여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영적 각성운동은 감리교회의 웨슬리적 영성과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의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는 것이요,

뜨거운 가슴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자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것이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는 신실한 감리교인(faithful members, FM)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도와 선교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영적각성 운동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신실한 감리교인상을 회복하는 기본 위에 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영적 각성 집회를 지역별, 연회별로 실시할 것이며 이를 전도와 선교의 열기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영적 각성 실천의 차원에서 ‘희망투어’를 통한 나눔의 실천으로 감리교회의 선교적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열정과 역량을 영남선교대회를 중심으로 최고조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영남선교대회를 앞두고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훈련을 강화하고 실제적인 전도를 통한 감리교 홍보를 실시해 대회를 준비하여, 영남지역에 감리교회의 선교적 이미지가 변화되게 할 것이다.

둘째로, 교회부흥운동과 희망목회운동으로 감리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다. 교회부흥은 전도운동 중심이다. 말을 타고 복음 전하던 웨슬리의 모습은 우리 감리교회의 정체성이다. 전도의 열정을 다시 불붙이고 ‘원 플러스 원’ 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웨슬리 전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전도 훈련뿐만 아니라 전도운동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도시와 농촌교회 연결,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연결시켜 상생목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추진하고, 중형교회 개척 설립 운동으로써 본부와 각 연회에서 한 교회씩 설립 운동을 추진하여 교회부흥과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 희망목회운동은 미자립교회 대책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이를 위해 미 자립교회 목회자 재교육과 M-Project를 추진하며, 또한 희망목회 모델 교회를 찾고 홍보하여, 좌절과 패배의식에 빠진 목회현장에 희망을 주려고 한다. 특히 우리 교회의 희망인 어린이와 청소년 부흥을 위해서도 최우선적인 정책과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가 있는 건강한 감리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리교회가 세계(세상)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선교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WMC의 성공적 개척을 통해 높아진 한국 감리교회의 위상에 부응하고 21세기 세계선교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 구조와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확대하며, 세계교회들과 적극 교류하고 협력한다. 선교사 1000명 시대를 바라보며 선교사 훈련에서 파송,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세계선교부서의 확대와 독립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세계 선교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지도력 개발에 힘쓴다. 감리교회의 희망은 청소년들과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장학재단을 확충하고 기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지도력 양성을 위해 신학교 커리큘럼 수립,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과 회의 참여를 확대한다.

한편, 세상 속에서 선교와 전도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회봉사를 하나로 묶고, 자원봉사운동을 전국적이며 통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감리교회의 이미지 선교를 강화하고 전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봉사단 조직, 희망의 집, 희망의 쌀 운동을 전개한다.

3. 희망 프로젝트 추진 일정 및 계획

- 1) 감리회는 '희망 프로젝트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부에 추진운동 본부를 두어 주무는 선교국에서 담당하되 본부 각 국과 비서실이 유기적으로 함께 일하는 구조를 수립한다.
- 2) 각 연회, 지방별 연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특히 정책대회 이후 연회별 정책세미나를 실시한다.
- 3) 전국의 감리교회가 2007년 1월 초를 기해 일제히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차량에도 걸어서, 희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출발하도록 한다. 본부에서는 이러한 현수막 샘플을 제공한다.
- 4) 2007년~2008년간 우선 실천할 내용을 연대별로 수립한다. 본부 각 국은 정책 자료집 내용에 희망 프로젝트 중심의 계획을 창조적으로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것은 피한다.
- 5) 희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과 담당 직원을 총회 실행부 위원회를 통해 확보한다.
- 6) 희망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별 기도회를 실시하고, 2008년 5월에 전국 임원대회(성회)를 개최한다.
- 7) 희망 프로젝트 장기실천과제를 중심으로 감리교 선교백서를 발간한다. (장단기 발전위원회와 협력)
- 8) 희망 프로젝트 점검과 평가를 위한 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월 1, 2회)으로 점검하고, 임원회를 희망 프로젝트 추진과 연결하여 진행하며, 각 국 정책협의회나 국 위원회에서도 이를 점검하고 적극 추진한다.

서언 : 희망 프로젝트 추진 본부의 구성과 선교국의 역할

‘희망 프로젝트’는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내세운 신경하 감독회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임기 후반부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는 오늘의 감리교회가 처한 영적, 선교적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과 감리교회 정체성 회복을 통해 전도와 봉사, 세계선교에 전심전력함으로써, 대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감리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다.

희망 프로젝트는 지난 1년간의 장단기 발전위원회의 열정적 준비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희망 프로젝트는 과거의 그 어떤 교단 정책 프로젝트와 비교해 보아도, 종합적이고 균형이 잡힌, 그래서 진정 감리교회다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매 맺게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어느 한 부서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본부 각 국과 11개 연회를 포함한 감리교회 전체의 합심 협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6)”는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제27회 총회를 통해, 희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범감리교회적 기구를 본부에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본부에 ‘희망프로젝트 추진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며, 그 산하에 추진 본부를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위원회와 실무본부는 총회실행위의 의결을 거쳐 가능한 연초부터 가동되게 준비할 예정이다. 실무본부의 일과 관련하여 선교국은 주무를 담당하겠지만, 직접 추진해야 할 정책 내용들 외에는, 주로 일을 조직화하고 조정하며 통일시키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다. 프로젝트의 내용 상 감리회 본부의 각 국과 비서실, 그리고 연회 본부가 공동추진본부가 되어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할 때만 효과적인 결실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감리교회 5,800교회 150만 성도 모두가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선교국 중점 추진 내용과 방안

희망 프로젝트의 세 가지 중점 목표, 즉,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은 구체적 내용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I.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1. 영적 대각성 운동 전개

1) 취지와 목적

2007년은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03년 하디 선교사로부터 이어진 영적 각성운동을 기념하고, 오늘의 선교적 위기상황에서 새롭게 각성과 부흥 운동을 일으켜 세계와 사회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감리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beyond 1907>을 앞세워 영적 각성운동을 전개한다.

2) 주요 추진 내용

- ① 2007년 5월 초에 전국 임원 초청 영적각성 성회를 개최하고, 이어 웨슬리 회심주일 집회를 기회로 이를 지방 차원으로 확대한다.
- ② 임원대회 이후 영남선교대회가 정점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연회별로 영적 각성 집회를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중심으로 실시하고, 말씀과 기도운동을 전개한다.
- ③ 영적 각성 실천의 차원에서 “희망 투어”를 실시하여 어려운 교회와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감리교회의 선교적 이미지를 고양시킨다.

2. 영남선교대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영남지역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고 감리교 선교의 취약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선교대회를 실시하여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감리교 부흥의 전기를 삼고자 한다.

2) 주요 추진 내용

- ① 영남선교대회를 2007년 8월 하순경에 실시하되, 거리전도와 봉사활동, 전국 감리교회가 모인 영적 각성 및 선교대회,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전도 집회를 기획한다.
- ② 연회 이후 영남선교대회 전까지 전국적으로 전도 집회와 희망투어를 실시하고, 청소년 희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영남선교대회에 절정에 이르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영남선교대회 전에 미리 영남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전도 훈련을 실시하고 사전 전도를 통한 지역 내 감리교 홍보에 힘쓴다.

II.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

1. 범 감리교회적 전도운동 전개

1) 취지와 목적

300만 총력전도운동을 계승하고 개체교회 전도운동을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감리교회의 부흥을 이룩하고 전도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자 함이다.

2) 주요 추진 내용

- ① “원 플러스 원(1+1)” 배가운동의 전개: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가정이 한 가정을, 한 속회가 한 속회를 배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이 운동의 표어는 “할 수 있다 한명 전도, 하면 된다 배가운동”으로 통일한다.
- ② 개체 교회마다 전도대를 조직하고, 전도자를 훈련하며 (웨슬리 전도학교와 연계), 모범 전도인을 적극 표창한다.
- ③ 감리교회 특징적인 전도법을 개발하고 전도지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④ 웨슬리 전도학교를 강화하고 지방, 개체 교회 단위의 전도훈련을 활성화한다.

2. 미자립교회 대책 수립과 전략적 개척교회 설립 추진

1) 취지 및 목적

든든히 서기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자립교회에 문제에 대한 대책과 교회 개척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교회부흥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주요 추진 내용

- ① ‘미자립교회 대책위원회’ 활동을 본부, 연회, 지방 차원에서 활성화한다.
- ② ‘미자립교회 자립 지원 및 교회개척기금’을 본부와 연회가 연합하여 조성하고, 본부와 연회에서 향후 2년 내에 한 교회씩 전략적 중형교회를 개척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 ③ M-project(실험교회 운영을 통한 미자립교회 극복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 ④ 전국적으로 전략적인 교회개척이 필요한 지역을 연구 조사하여 자료화하고, 교계지에 적극 홍보하여 구체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3. 상생과 희망 목회 운동 전개

1) 취지 및 목적

문화일보에서 추진하는 ‘1사1촌 운동’에 착안하여, 도시와 농촌 교회, 작은 교회와 큰 교회를 서로 연결하고, 희망을 주는 목회 모델을 발견, 홍보함으로써 목회현장에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2) 주요 추진 내용

- ① 도시 - 농어촌, 자립 - 미자립 교회 간의 자매결연 운동을 전개한다.
- ② 희망 목회 포럼을 실시하고, 다양한 목회 패러다임을 개발하여 작은 교회나 특수 목회자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 ③ 다양한 영역에서 희망을 주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찾아 소개하고 격려하는 희망교회 운동을 전개한다.

III. 세계(세상)로 나아가는 감리교회

1. 세계선교 협력의 확대와 종합적 선교사 관리 시스템 마련

1) 취지와 목적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이 성공적 개최를 통해 높아진 선교적 위상에 부응하고 21세기 세계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교회들과 협력하며 세계선교 지도력을 개발해나가는 한편, 내부적으로 선교후원과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나가기 위함이다.

2) 주요 추진 내용

- ① 세계교회들과의 선교협력과 협약을 확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수립한다. UMC 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 아시아 감리교회들과의 선교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중국교회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
- ② 선교사 관리와 후원 시스템을 통일화 시켜 나가며, 나아가 점증하는 선교사와 세계선교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선교부서의 확장과 독립을 추진한다.
- ③ 세계선교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과 지도력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개체교회의 선교참여를 활성화하고 평신도 전문인, 단기 선교사 제도를 강화한다.

2. 민족과 세계를 향한 에큐메니칼 지도력 확대

1) 취지 및 목적

민족의 평화통일과 세계교회의 일치협력을 위한 활동은 감리교회의 귀한 전통이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다. 4년 전임 감독제를 가지고 있는 감리교회의 위상이 에큐메니칼 현장에서 더욱 영향력 있게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주요 추진 내용

- ① 민족의 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해 세계 교회 및 세계 감리교회와 네트워크를 갖고 협력한다.
- ②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며 북한에 교회 재건과 설립을 위한 기금 운동을 전개한다.
- ③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한 차세대 지도력을 선발하고 양성한다.
- ④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이 청의론 합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내에서도 교회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1. 영적 대각성과 영성회복을 위한 교육정책 실현

1) 취지와 목적

감리교회의 영적 각성 붐 조성과 다시 교회를 부흥케 할 능력(특히 교회학교)을 배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희망 프로젝트의 근본 취지는 1907년 대 부흥운동이 현재화되어 전 감리교인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되고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에 교육국은 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영성 회복에 두고 각종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한다.

2) 실천

- ① 새 교육 과정 개발 시 영적 대각성과 영성 회복 역점
- ② 교육 주제와 정책 수립 시 영적 대각성과 영성 회복 강조
- ③ 기존 발행 교재 개정판 편집 시 영성 회복과 훈련 강조
- ④ 웨슬리 영성에 대한 자료 개발
- ⑤ 교사와 청년을 위한 연회별 ‘영적 대각성 집회’ 개최
- ⑥ 영남 지역에 초점을 맞춘 각 지방별 교사·청년 영적 각성 집회 개최

2. 차세대 비전 세우기(청소년·청년) 위한 정책 개발 및 훈련

1) 취지와 목적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의 미래는 다름아닌 ‘차세대 육성’에 달려 있다. 저출산에 따른 청소년과 어린이 인원 감소의 현실에서 감리교회는 과감히 차세대에 투자하여 미래 교인들을 육성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에 교육국은 차세대 비전 세우기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2) 실천

- ① 아동부 ~ 청년부 교재 개발에 최역점
- ② 우리 감리교회 교재 사용하기 운동 전개
- ③ 청년 교회 활성화 및 청년 교육 지원 강화
- ④ 청년 목회자 네트워크 구성 및 청년 목회 개발 지원
- ⑤ 관심 분야(문화와 스포츠)를 통한 선교 전략 실행
- ⑥ 학원 선교의 핵심인 캠퍼스 선교 활성화 방안 제시
- ⑦ 지역 대안학교를 통한 감리교 이미지 고양 방안 수립

3. 국제적 리더 양성을 위한 청소년·청년교육 강화

1) 취지와 목적

성공적인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 성과와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연결, 차세대들의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키워 미래의 에큐메니칼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며 세계 선교의 핵심에 설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의 초석을 든든히 세운다.

2) 실천

- ① 영어 예배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 ② 한미 교환 학생 홈스테이 프로그램 추진
- ③ 단기 선교 체험 및 해외 교회 탐방
- ④ 언어 실력을 갖춘 에큐메니칼 리더 발굴과 훈련 실시
- ⑤ 각종 국제대회 청소년·청년 파견
- ⑥ 탁월한 유망 학생에 대한 최대의 장학 지원

4. 감리회 정체성 강화를 위한 속회 정책 쇄신

1) 취지와 목적

든든히 서 가는 감리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웨슬리 부흥 운동의 기초인 속회 운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화된 속회에 대한 운영 시스템과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여 이를 개체 교회들이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교육국은 이를 위해 감리회 정체성을 강화한 속회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고자 한다.

2) 실천

- ① 속회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직 및 개혁안 마련
- ② 속회 운영 방식의 개혁; 열린 모임으로 신앙 나눔 강화
- ③ 속회공과 내용의 성서적 확충
- ④ 속회 지도자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1일 수양회 도입 등)
- ⑤ 모범 속회 발굴 및 소개 세미나

5.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어르신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1) 취지와 목적

든든히 서 가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이미지로 사회에 각인되어야 한다. 급격하게 변하는 노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신뢰받는 감리교 이미지를 브랜드화 한다.

2) 실천

- ① 기존 2차의 어르신 성경학교 교재와 프로그램 확대 개편
- ② 노인 목회 혹은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 ③ 개체 교회에 어르신 프로그램 제시

6. 희망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성서 교육 및 영성 훈련 강화

1) 취지와 목적

희망의 감리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는 목회자들의 영적 능력 회복과 전문 목회자로서의 실력을 갖추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국은 목회자 양성 기관인 각 신학대학원에서 성서 교육과 영성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목회자들에게는 정회원 연수교육 등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사도의 모습을 갖추게 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실천

- ① 계통학교 교수 및 사문직원 지원 자격 강화
- ② 각 신학대학원 성경 교육 강화 방안 제시
- ③ 각 신학대학, 대학원, 신학원의 통일된 웨슬리 영성 훈련 수립 및 시행
- ④ 젊은 목회자를 위한 영성 및 목회 기능 개발과 집중 양성
- ⑤ 성경과 영적 통찰을 위한 특강 실시(정회원 교육 시)

7. 감리교인 영성 회복과 경건 생활을 위한, 교회력에 따른 교재 개발

1) 취지와 목적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감리교인들의 영성과 경건 생활이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영성 회복과 경건 생활을 도와 신실한 감리교인으로서 지역사회에 서게 한다.

2) 실천

- ① 새신자 양육 성장 훈련 과정 마련
- ② 임원 자격의 강화 및 훈련 과정 수립(영성 생활 기준안 마련)
- ③ 감리교 필독서 작성 및 보급 운동 전개
- ④ 웨슬리 회심 기념 특별 새벽기도회 가이드 북 발간
- ⑤ 개인 영적 생활 점검표 작성 및 보급
- ⑥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를 묵상하는 묵상집 발간(강림절, 사순절)
- ⑦ 연수원 영성 프로그램 강화

8. 대 사회적 이미지 쇄신을 위한 여성·평화 교육 강화

1) 취지와 목적

감리교회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민족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감리교 교인의 60%에 이르는 여성들의 지도력 개발이 시급하며 갈등과 폭력이 넘치는 사회에서 선도적으로 생명과 화해의 문화를 일구어 가는 평화의 리더들이 절실하다. 교육국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 일꾼과 화해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실천

- ① 교회 여성들의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 ② 기독교 평화 교사교육 프로그램
- ③ 갈등 해소 대화법 등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9. 영남선교대회와 병행하는 젊은이 선교 축제 및 희망 투어

1) 취지와 목적

감독회장의 희망 투어에서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영남 지역 젊은이 선교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2) 실천

- ① 희망 투어의 일환으로 청년 교사를 위한 1일 집회 개최
- ② 선교대회 전야제로 전국 청년 학생 영적 대축제 개최
- ③ 감리교 젊은이 선교 결집을 위한 자전거 희망 투어 실시
- ④ 청년연합회 조직에 박차를 가하여 청년 신앙 결속력 강화

사회평신도국

총무 엄마리 장로

1.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실천함으로 영성과 경건생활을 회복한다.

1) 제정 취지

사회평신도국은 2007년 주제를 “**영적 각성으로 거듭나는 평신도**”로 정하고 평신도들의 영적 각성과 성장으로 평신도들이 감리교회의 희망으로 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이를 위해 <감리교 희망프로젝트>의 제1사업인 ‘영적각성 실천운동’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감리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신실하고 바른 복음적인 삶을 실천함으로써 영성을 회복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 방안을 마련하여 감리교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한다.

2) 홍보 및 보급 방안

- ①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 ② 주제를 상징화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평신도단체 및 개체 교회를 통해 보급한다.
- ③ 평신도 월례회공과 등 사회평신도국에서 발행하는 자료에 감리교인 생활수칙이나 요약된 구체적인 생활지침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보급한다.
- ④ 감리교 본부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에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을 홍보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보급한다.
- ⑤ 온라인(감리교 홈페이지)과 오프라인(기독교타임즈)을 이용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 ⑥ 본부, 연회, 지방회와 개교회 주관의 행사 시마다 이 운동의 올바른 취지를 홍보하고 실천을 다짐하도록 한다.
- ⑦ 감리교회의 모든 평신도단체(남·여·청장년·장로회·여장로회·원로장로회)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수련회나 세미나 등 각종 행사시에 생활수칙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실천을 다짐하도록 한다.
- ⑧ 지방사회평신도부 총무를 통해 이 운동을 지방 사회평신도부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⑨ 평신도주일 행사시 생활수칙 실천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실천을 다짐하도록 권고하고, 자료집에 관련 자료와 실천 사례 등을 게재한다.
- ⑩ 모든 감리교회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수칙과 아이디어 등의 공모 행사를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갖게 하고 널리 확산되도록 한다.

3) 확인 및 점검 방안

- ① 감리교인 생활수칙이 확산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감리교회 본부 차원의 전담 운영팀을 구성한다.
- ② 평신도단체장 협의회를 통해 단체별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연합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논하여 시행한다.
- ③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의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 보고 시에 생활수칙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기독교타임즈와 홈페이지 등에 모범 사례로 홍보하여 개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감리교 사회봉사단을 조직하고 전국 사회봉사단대회를 개최한다.

1) 개요

이미 개체교회별로 전개되어 온 사회봉사사업을 감리교회 전체로 네트워크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훈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연회와 지방별로 사회봉사단을 구성하도록 독려하며, 사회평신도국에서는 조직에 필요한 사회봉사단 규칙을 제정하고 제반 사항을 돕는 한편, 전국 사회봉사단 협의회를 운영하고 전국 사회봉사단 대회를 개최한다.

2) 사회봉사단 규칙 제정

사회평신도국은 '감리교 사회봉사단 규칙' 초안을 작성해 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0월 입법 총회에 상정한다.

3) 시행방법

- ① 사회평신도국은 감리교 사회봉사단 규칙을 입법총회에 상정하며, 연회에서는 사회봉사단 규칙에 근거하여 연회별 사회봉사단을 조직한다. 연회 사회봉사단이 조직되면 지방에서도 사회봉사단을 조직하도록 한다.
- ② 연회는 연 1회 이상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지방에서는 연회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여한다. 교육훈련 이수자는 회원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한다.
- ③ 연회는 청장년선교회의 기술자원봉사단을 단체회원으로 받아 연회 내 저소득장애인, 독거노인들의 주택을 수리해 주는 기술봉사활동을 지원한다.
- ④ 연회는 청소년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자원봉사꿈나무 영성훈련'을 연회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최하고 수료한 학생을 청소년 사회봉사단 회원으로 한다.
- ⑤ 연회 사회봉사단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회 및 지방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전국 사회봉사단협의회 및 전국 사회봉사단대회

연회별로 사회봉사단이 조직되면 사회평신도국에서는 전국 사회봉사단협의회를 조직하여 감리교 자원봉사의 발전방향과 협력 사안을 논의하고, 전국 사회봉사단대회를 개최한다.

사무국

총무 김영동 목사

사무국은 감리회 본부의 행정과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정책국이 총회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선교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리회관 및 본부 기본재산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있다.

또한 희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각 부서는 행정제도의 개선과 민원업무처리 개선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국의 업무는 5,700교회와 8,000여 명의 교역자와 150만 성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에, 각 종 민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친절하고 섬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민원인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것이며, 낡은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감리교회의 희망이 될 것이다. 특히 은급사업은 지속적인 개선안을 통해 이미 은퇴교역자들의 희망이 되었고, 장학사업과 복지업무는 미래 감리교회의 희망의 사업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무국 각 부서의 희망을 향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제도 개선을 이루는 행정부

감리회 본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면서 동시에 총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의 중심이기에, 본부 행정부 업무의 두 주류는 본부 임직원들의 신앙과 영성생활에 대한 지원과 본부 행정과 임직원들의 인사, 복지행정에 대한 관리업무이다. 본부 임직원들의 신앙과 영성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도회와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본부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전체 감리교회 내의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행정총회가 개최되고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분과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제8분과인 행정 및 인사제도연구위원회를 통해 본부 조직에 대한 연구와 행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어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2. 수익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회관관리부

감리회의 임대사업장으로 감리회관, 정우빌딩 11층, 회현상가가 있다. 현재 임대면적 4,828평이 100% 임대된 상태이다. 전세부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료수익을 증대해 갈 계획이다.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 10. 31. 현재/단위:원)

사업장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수입	월 관리비 수입	월 주차비 수입
감리회관	7,912,257,000 (8,576,737,000)	230,883,000 (299,343,000)	106,794,640 (134,674,640)	약 12,500,000
정우빌딩	204,528,000	20,265,800		
회현상가	37,000,000	2,880,000		
합 계	8,153,785,000 (8,818,265,000)	254,028,800 (325,488,800)	106,794,640 (134,674,640)	

- 위 ()안의 금액은 18층 일부(12월 입주), 19층 전부('07년 1월)의 임차인이 입주시부터 적용됨.
- 임대보증금 환급금 적립액 : 4,624,000,000원(58.4%)

3. 은퇴교역자들의 희망인 은급부

현재 은급사업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과 금융시장의 상황변화는 은급사업의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사회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퇴직 연금제도'의 성격을 병합한 은급제도의 보완을 연구 중이다. 교회와 교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은급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은급부담금 현황

(2006. 10. 31. 현재/단위:원)

부담금 수입	월 평균 지급액	연간지급액(예상)
2006년도 교회부담금 책정액 : 8,303,563,000 2004년도 교역자(4,370명) 부담금 : 약 7,800,000,000원	637,098,250 (지급대상인원 : 1,010명)	7,873,520,000

2) 임대현황

(2006. 10. 31. 현재/단위:원)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수입	월 관리비 수입
감리회관 12층	460,200,000	47,200,000	20,060,000
하나로빌딩 8층	167,745,600	16,774,560	
합 계	627,945,600	63,974,560	20,060,000

3) 은급금 예금잔고현황 : 16,876,122,316원

4. 개체교회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산관리부

감리회의 재산편입제도는 교단을 하나로 묶는 벨트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교회재산의 사유화 방지, 교회재산으로 인한 분열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중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편입 이전보다 10배 이상의 부당한 세금을 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고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교회건축이 위협을 받고 있고 부목사, 전도사 주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7회 총회 5분과 재산관리에 대한 연구위원회의에서 교회재산 세금문제등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바, 앞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청원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 10. 31. 현재/단위㎡)

토지면적	건물면적	합 계	편입교회수
13,675,817 (4,136,935평)	2,544,527 (769,719평)	16,220,344 (4,906,654평)	3,214

5. 미래 감리교회의 희망인 복지법인과 장학사업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게 요구된다.

원로원시설이 부족하여 입주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어 원로원을 증설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 10. 31. 현재)

시설명	복지시설	원로원	분사무소
곳	64	38 (원로목사 53명)	8

2) 장학금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 10. 31. 현재/단위:원)

수령자	지급액
79명 (대학원생, 대학생, 고등학생, 신학생, 계통대학생, 계통고등학생)	119,500,000(미화 30,000불)

6.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희망의 감리교회를

교회 민원의 친절,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 전송, 이메일, 우편을 이용한 처리를 확대해 갈 것이다.

재산관련 법률, 세무, 등기문제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무자들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다.

〈희망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고 적극 실천할 홍보출판국

영성과 선교의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감리교회는 한국 교회의 희망이고 세계 교회의 희망이다. 왜냐하면 한국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웨슬리의 전통과 신앙 유산이 가장 성서적이고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아직은 유기적이고 협동적인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감독회장을 통하여 점화된 〈희망 프로젝트〉인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 든든히 서 가는 감리교회, 세계로 나가는 감리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한 알의 썩어진 밀 알처럼 서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스타가 아니라 어시스트의 책임을 다할 것을 홍보출판국 직원 일동은 다짐하는 바다.

특별히 오후 5시에 포도원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사람으로서 조급한 마음이나 성취욕을 버리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위로는 감독회장과 홍보출판국 위원장(김기택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5,700 교회 8,700 목회자와 150만 성도들의 청지기 요셉의 삶으로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 교회의 부흥과 선교에 피부에 닿는 구체적인 일을 함으로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끊임없는 조연과 지도편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더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교훈삼아 짧은 시간에 장단기 〈희망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 것을 약속하면서 실무자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홍보출판국의 사역을 보고한다.

1. 홍보출판국의 당면과제

기본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홍보출판국이 하는 사업 중 중요한 일은 출판물을 기획하고 출판하여 영업함으로 세금도 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이익을 남기어 〈희망 프로젝트〉를 위하여 선교비를 후원하는 일까지 감당하는 운영구조다. 그러나 신뢰가 손상되고 정기간행물(「기독교세계」, 「강단과 목회」, 「신앙과 교육」)에 천문학적인 미수금이 쌓이고 단행본과 달력에서도 미수금(2억)이 쌓이므로 인쇄업체에 인쇄물을 맡기고 결재를 빨리 하지 못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업체에 일을 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받을 것은 많으나 쓸 돈이 없는 상황이 홍보출판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확신한다. 감리교회 지도자들의 정직성과 협동정신을 믿기에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1,000원 한 장 빈틈없이 투명하게 관리함을 증명함으로 기록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홍보출

판국, 5,700 교회, 150만 성도가 믿고 협력하고 이용하는 홍보출판국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다짐하고 거의 날마다 청계천 맑은 물 따라 걷고 뛰면서 다짐하는 바이다.

2. <희망 프로젝트>를 위한 영업부 실천 방안 보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구매의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객이 원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유통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1) 서점 : 가장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판매 방식이다. 각 거래 서점에 KMC 도서 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증진 및 홍보를 도모하겠다.
- 2) 온라인 쇼핑몰(www.kmcmall.co.kr) : 그동안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미비로 유명무실하였으나 현재 정상 운영 중이므로 외상거래를 원하는 교회들이 쇼핑몰을 이용하도록 외상거래를 최소화하겠다.
- 3) 홍보 : 현재의 도서시장은 공급이 넘쳐나기에 적절한 상품 정보의 제공과 홍보 없이는 판매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거기에는 전문학적인 홍보비가 필요한 형편이므로 현재의 재정운용 시스템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리교회에서 나오는 교재 및 성인공과(속회공과, 하늘양식)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한다.

3. 도서출판 KMC(단행본)의 <희망 프로젝트>

도서출판 KMC는 한국 감리교회의 정체성 확립, 감리교 신학 발전에 이바지, 변화하는 시대에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지표와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까지 지평을 열어 주고 평신도들을 제자화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함으로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역을 감당코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1) 5,700 감리교회가 감탄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전도지를 제작, 보급하여 영남선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감리교회 부흥운동에 동력이 될 것이다.
- 2) 잡다한 일보다는 가능한 보다 중요한 사역에 집중하여야 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국 교회 1,000만 성도에게 영향을 주고 사 볼 수 있는 베스트셀러가 나와야 할 때다. 세상의 도서는 100만 부의 베스트셀러가 있으나 신앙도서에서는 드물어 특히 KMC의 간절한 기도제목이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과 같은 베스트셀러가 나와야 할 때다.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감리교회의 위상과 영향력을 상상해 본다. 꿈만 같은 이야기일까?
- 3) 모델이 없이 세상을 따라 교회까지도 본질을 떠나 소유 때문에 경쟁하고 싸우는 오늘의 한

국 교회에 모델을 찾아 읽고 배우는 도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모델 선교사, 모델 원로목사, 모델 평신도, 모델 교회, 모델 어린이와 청소년...

- 4) 121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감리교회에 과거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패배주의와 경쟁주의로 감리교회의 영웅이 나오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실을 탓하지 아니하고 홍보출판국에서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하고 문서로 큰 나팔 불어 홍보함으로 바위얼굴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도 힘써야 하겠다. 기대하시고 많은 기도와 지도 편달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4. 정기간행물(「기독교세계」 「강단과 목회」 「신앙과 교육」)

가정예배와 평신도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재인 하늘양식은 타 교파에서도 인정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뜨거운 감자요, 계륜이다. 발간할수록 손해이고 매스컴과 미디어 홍수시대에 미운 오리새끼처럼 희망이 없으니 암담하기만 하다. 특별히 「기독교세계」(1933년 창간) 915호 발간으로 초교파 한국 교회에 제일로 역사가 깊은 월간 잡지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세상의 사업이라면 벌써 망하고 도태되었을 것이다. 홍보출판국에 속한 14명의 직원이 땀 흘려 일한 열매를 쏘아 부어도 모자라는 과제물이다. 아무리 기도하고 상의해도 해답이 백인백색이 아니 답답하기만 하다.

IMF를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2007년 상반기에는 최대공약수가 나오리라 확신한다. 홍보출판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존 웨슬리의 영성과 삶을 회복함으로 감리교회의 <희망 프로젝트>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루터와 칼뱅보다 사랑하고 홍보하며 닦아야 할 신앙과 삶의 모범이 존 웨슬리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5,700 교회 8,700 목회자 150만 성도가 ‘웨슬리’로 사상화, 생활화, 기도화, 현장화 된다면 감리교회는 한국과 세계에 희망이 될 것이다. 21세기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존 웨슬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도서출판, 홍보, 구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웨슬리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8세기 영국을 살리고 19세기 세계 선교의 종주국이 되게 하였고 20세기 미국 교회를 세워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던 처음 감리교도들처럼 한국 감리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6. 사람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 <희망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홍보출판국의 기본 사역인 홍보와 출판사역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조금은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고 기도하여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고 다윗처럼 희생하며 심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루를 한 달처럼, 한 달을 하루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총무와 철인(鐵人)처럼 사역하는 직원들(예: 기독교세계를 한 사람의 직원이 만드는 직장,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직장, 토요일이 휴무임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직장)이 있기에 홍보출판국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문서선교사와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 전문성의 향상으로 최고의 도서를 만들어 영업의 이익을 창출하고 본부 사역을 후원하는 홍보출판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7. 협력하고 후원하는 홍보출판국

홍보출판국의 사역 자체로는 홀로서기를 할 수 없다. 하기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십자가(더하기와 희생)의 길이다. 특별히 가장 밀접한 곳은 교육국이다. 그러나 마지막 포커스는 선교국과 사회평신도국이고 이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무국과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세포와 핏줄 그리고 뼈와 관절의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홍보출판국은 섬기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장 많은 주인(고객)이 방문하는 본부의 얼굴과 같기에 모든 직원들은 웃고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섬길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8. 시작하고 계속해야 할 〈희망 프로젝트〉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슬로건 아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희망도서관”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워진 곳을 리서치하고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서관이 설립되었으므로 장소는 오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완벽한 도서관을 세워 주는 것보다 ‘문 열기’로 해 주고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미 수많은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 도서실을 검증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증하고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홍보함으로 미래의 꿈나무를 양육하고 독서운동을 활성화시킴으로 홍보출판국이 지향하는 문서선교사역이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9. 〈희망 프로젝트〉 “영남선교대회”까지 무엇을 할까?

- 1) 홍보출판국 총무 사무실에 ‘간이 도서관’을 만들어 본부 직원들이 독서할 수 있도록 섬길 것이다.(ex: 삼성 일렉트릭 사)
- 2) 스스로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청계천 땅 밟기 기도산책”, “광화문 빌딩을 중심으로 여

리고 성 함락 전도하기”, “불씨” 기도운동을 전개함으로 영육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본부가 마가 다락방이 되도록 할 것이다.

- 3) 150만 독서운동 “책만 읽어도” (가칭): 책만 읽어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부흥한다. 선교사, 미자립교회, 군 선교사 등에게 무료(후원금 및 광고 선교헌금)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도서 보내기” 운동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운동을 발전시켜 희망의 감리교회를 세우고 미래 고객을 확보토록 한다.
- 4) 정직한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도 부흥된다. 5,000년 민족의 역사 속에 책에 대한 잘못된 문화가 있다. 빌려간 책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삶이다. 그러나 국민 소득 2만 불 시대에 흔하디흔한 게 책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만 있으면 살 수도 있고 밀린 도서 대금을 갚을 수 있다.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되듯 밀린 도서 대금을 완납하여야 홍보출판국이 든든히 설 수 있고 희망의 프로젝트 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선교비” 차원에서 완납함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감리교회의 저력을 믿는다.
- 5) 지금은 유비쿼터스의 시대다. 평신도 단체와 협력하여 평신도 지도자들의 이메일 주소를(이메일) 입력시키고 모든 교회 목사들을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를 이루어 통신비를 절감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도서를 홍보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 6) “희망투어”에 가능하다면 KMC 이동서점을 운영하고 밤에는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선정하여 문서 선교 활성화를 위한 1일 부흥회와 특별 문서 선교 헌금도 접수토록 한다.
- 7)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로 동력화 되어야 한다. 기도 십자가를 제작, 보급하는 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짧은 기간에 직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많은 지도자들의 조언도 듣고 기도하면서 실천 가능한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할렐루야! 민족과 세계에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될 것이다.

1. 개요

우리 감리교회는 한국 개신교회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상황 속에서 사회와 교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자 힘쓰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비판이나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서, 문제 해결의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 길을 앞장서서 가겠다는 결의이다. 그러기에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관심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원에서는 현재의 교회적 위기는 부분적인 개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위기이며, 따라서 ‘교회갱신’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하고, ‘교회갱신’은 ‘교회지도자들의 변화’와 ‘교회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희망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하여 교회지도자들의 변화를 위한 ‘영성’과 ‘지도력(Leadership) 개발’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영성’이 생명력이라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영성’ 없는 ‘리더십’은 무기력하고 ‘리더십’ 없는 ‘영성’은 무능할 수 있다. ‘영성’을 계발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력을 회복하고, ‘리더십’을 훈련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교회가 사회로부터 받은 지탄과 염려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지도자들에게서 ‘영성’과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러한 긴박한 요구 앞에서, 교회지도자들의 ‘영성’과 ‘지도력’ 계발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과 투자의 일차적인 목표는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파트너십(Partnership)형성’일 것이다. 감리교회는 이미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 간의 협력과 조화 없이는 교회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된 공동의 신앙고백과 자기의 사명과 은사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세상을 향하여 각자의 제사장적 사명을 고백하는 평신도사역의 시대, 교회가 사회를 부흥시키는 동반적 부흥을 감당해야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 내외적인 요구에 따라, 평신도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하여 평신도지도자들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목회자와 건전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감리교 영성훈련체계를 수립해 가고자 한다.

2. 주요 업무

1) 감리교 영성훈련체계 수립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교단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웨슬리신학자, 영성훈련관계 전문가, 교단의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감리교 영성수련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가칭 감리교영성운동개발위원회를 결성하여 영성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 동시에 이미 검증된 모범적인 영성훈련을 대표적으로 시행하여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웨슬리영성운동의 전형을 만들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일영연수원을 표본적인 영성운동의 요람으로 세워가고자 한다.

2) 정회원연수교육

목회현장에서 목회자가 스스로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의무적으로라도 목회자에게 학습과 교제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목회자가 자기성찰과 학습의 기회를 갖고 동료 목회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목회자가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통해서 학습과 노동과 기도훈련을 경험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련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

3) ‘엠마오 가는 길’ (Walk To Emmaus)

이 프로그램은 지역교회 평신도지도자 들을 훈련시켜 개체교회의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들의 영성과 지도력을 계발하여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좋은 협력자가 되게 하고, 나아가 사회 속에서 모범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은 철저한 헌신과 겸손한 봉사, 그리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발굴과 양육의 정신, 또한 매사에 균형과 협력을 이루는 건강한 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교역자와 평신도지도자간에 건전한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이때에 이러한 정신과 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영향을 교회에 끼치게 될 것이다.

4) 목자학교

이 프로그램은 교역자(목사, 사모, 전도사)를 대상으로 매주 2일(월,화)씩 6주간의 강의와 1주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는 학교로 전, 후반기(2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내용은 먼저, 목회자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재확인으로 소명의 내적 확신을 새롭게 하고 둘째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목자의 마음을 되찾게 함으로써, ‘목자의 영성’을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비서실

비서실장 유희용 목사

‘희망프로젝트’는 4년 전임감독인 신경하 감독회장의 후반기 2년과 함께 갈 단기프로젝트로 기획됐다.

제19차 세계감리교회대회(WMC)가 지난 2년 동안 감리교회를 이끌어 온 핵심 사업이었다면, 앞으로의 2년은 한국감리교회가 내세웠던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라는 모토를 개체교회들과 함께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가능한 실행지침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희망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감리교회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목회자와 평신도의 열정을 하나로 묶어, 희망의 에너지를 만듦으로 한국감리교회의 새로운 갱신을 추구하는 ‘희망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서실에서는 희망프로젝트가 이루고자하는 뜻과 감독회장님의 의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해 나갈 것이다.

1. “희망투어” - 연회본부 및 지방회, 평신도단체와 협의하여 추진

희망투어는 감독회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해 나가는 행사이니 만큼 비서실의 주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회와 연회본부의 협조를 얻어 희망투어 본래의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이다.

2. 목회자 윤리강령 구체화

- 1) 감리교회 목회자 윤리를 새롭게 천명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존경받는 목회자 상을 수립한다.
- 2)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강령이 되도록 한다
- 3) 교회 사유화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다.
- 4) 성직위원회를 통해 실천한다.

3. 추진본부의 업무조율

본부내 Task Force팀을 운영하여 희망프로젝트를 점검하고, 독려한다.

4. “희망프로젝트”의 대외 홍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미지개선과 강화를 위한 홍보업무를 수행한다.

특별히 감리교이미지통합작업(Church Integration)을 전개한다.

5. 감리교회의 장기계획수립을 위해〈백서〉를 발간한다.

6. 연회가 추진하는 ‘이준열사순국100주년기념사업’(중앙연회), 구 철원제일교회 복원사업(동부연회)을 지원, 협력한다.

프로그램별 분과 발제

- 1-1 감리교 영성회복
- 1-2 희망투어
- 1-3 영남선교대회
- 2-1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감리교회
- 2-2 전도운동으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 2-3 상생목회로 목회자에게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 3-1 세계선교
- 3-2 민족과 역사를 향한 감리교회 지도력 강화
- 3-3 감리교회 사회봉사 일체화

감리교 영성회복

임정덕 목사(서울남연회 총무)

희망 프로젝트 3대 정책 과제의 핵심에 감리교 웨슬리 영성이 놓여 있다. 웨슬리 영성의 재발견 및 적용 없이는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도, 나날이 새로워지는 감리교회도,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도 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곧 세상에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한 핵심이 곧 감리교 웨슬리 영성의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사실 정책대회나 결의를 통해 급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깊은 말씀의 묵상과 감리교 전통에 대한 통찰, 그리고 긴 기간의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감리교 웨슬리 영성이 회복되어야 할 자리는 세 곳이다. 하나는 개인적 삶이고, 또 하나는 교회적 차원인 공동체적 삶이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삶이다. 각 자리에 맞는 영성을 개발하고 훈련을 실시함으로 감리교 웨슬리 영성은 회복되고, 그에 따라 감리교회는 건전해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1. 개인적 삶에서의 웨슬리 영성 회복

무엇보다도 웨슬리는 기도와 성서연구, 그리고 성만찬을 개인적 영성생활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감리교 영성회복을 위해 제27회 총회에서 제정하기로 한 ‘목회자 윤리강령’ 과 ‘감리교인 생활지침’을 정착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먼저 감리교회 목회자와 평신도의 신앙과 삶이 영적으로 신실하고,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또한 감리교 본부 홍보출판국은 깊은 묵상과 체험을 통해 나온 웨슬리의 기도문을 출판해 감리교인들의 개인적 기도생활의 모범으로 삼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간구의 내용보다는 자기 성찰의 내용을 담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성서를 개인적으로 읽고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리교적으로 특화된 교재개발과 훈련이 필요하다.

성만찬 예식도 매 예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개인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서적을 독서케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진급 중에 있는 목회자나 평신도들을 위한 단계별 필독서를 선정하여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동체적 삶에서의 웨슬리 영성 회복

먼저, 속회 등과 같은 소그룹 안에서 영성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개체 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모임들을 조사하고, 새로우면서도 적용 가능한 소그룹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소그룹을 인도할 인도자들의 개발과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리교의 전통적인 영성 훈련의 색채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예배가 생명력이 있는 영성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와 예전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여 감리회 본부의 담당 부서가 다양하게 개발하여 구비하고 개 교회들의 요구에 가급적 빠르게 응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새벽기도회나 수요 집회, 금요 집회도 성공적인 모델들을 발굴하고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 벤치마킹하여 - 모든 감리교회가 기본적인 틀과 내용에 있어서 교회마다 지나치게 다르지 않도록, 다시 말해 감리교회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유사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차원의 삶에서의 웨슬리 영성회복

웨슬리는 감리교회로 하여금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 봉사적 활동과 사회 변혁적 활동에 참여토록 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개체 교회는 그가 위치한 지역의 필요와 기대를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는 전문적 차원에서의 교단적인 관심과 코칭이 필요하다.

또한 교인들이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감리교인으로서 취해야 할 바른 태도를 정의한 '감리교 사회규약'을 제정하고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감리교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생활수칙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정의하고 실천하도록 훈련의 지침을 단계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희망투어

유희용 목사(비서실장)

1. 희망투어의 취지와 목적

희망투어는 감독회장과 연회감독들이, 마치 목사가 교우들을 심방하듯, 작은 교회들을 방문하여 격려하며 지역의 교회지도력을 통합하는 시간으로 삼으며, 아울러 지역사회의 소외자들을 찾아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방 및 연회별로 ‘영적각성 실천대회’ 및 ‘감리교사회봉사단’ 출범과 연계할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소외자는 막연한 계층이 아니라 사회적 틈새에 있는 특정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만나 감리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담으려 하는데 현재는 쪽방 주민들을 주목하고 있다.

2. 희망투어의 방향과 목표

희망투어는 일회성 행사나 한시적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① 감리교회의 영성 회복
- ② 교회의 지도력회복 및 통합
- ③ 대사회적 위상및 이미지 제고
- ④ 교회안팎의 소외계층 끌어안기

3. 희망투어의 프로그램

희망투어 프로그램은 전반기 영남선교대회 이전까지는 교회 안에, 영남대회 이후에는 교회 밖으로 관심을 두어 추진해 나간다.

1) 희망투어 기금 모금운동

글자그대로 희망을 나누어주는 희망투어가 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원을 받아 기금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2) 미자립 교회와 좌절에 빠진 교회 심방

- ① 연회 및 지방회와 연계하여 교회상황 파악
- ② 각 선교단체와 자선단체 및 사회복지 단체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③ 현장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심어주며 “감리교회”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일깨운다.

3) 역사적인 교회 발굴, 자랑스런 웨슬리안 표창

현장에 묻혀있던 역사를 발굴, 재조명하여 정리하고, 자랑스런 감리교도들을 발굴, 표창하여 격려함으로 감리교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감리교인으로서 긍지를 심는다.

4)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나눈다.

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눈다.

② 현재 사회적으로 여러 소외계층이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쪽방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③ 결과적으로 구세군 하면 ‘자선냄비’가 생각나듯이 감리교회가 희망투어를 통해서 대 사회적 이미지를 높여갈 수 있다.

5) 쪽방사람들을 위한 희망투어

① 현장 방문상담

② ‘2007년 쪽방상담소 후원의 밤’ 행사 개최

③ 주민등록 재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신청 등 각종 민원 대행

④ 편의제공서비스(목욕제공, 세탁제공, 무료급식)

⑤ 의복 및 생필품 지원 :겨울나기 지원사업(연탄, 방한용품 및 김장나누기)

⑥ 의료지원서비스 :건강검진, 방문진료 및 의료서비스 연계사업

⑦ 무료급식지원, 사랑의 먹거리 나누기 사업(지역단체 및 개인후원)

⑧ 밀반찬 지원

⑨ 기타 일상생활상담 서비스

4. 끝맺는 말

희망투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표어만 부르짖거나 책상머리에 앉아 계획만 세워서는 결코 안 되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고 말 그대로 현장을 찾아다니며 발로 뛰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감리교회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사랑으로 관심을 표현할 때 가능한 것이다.

영남선교대회

장석재 목사(삼남연회 총무)

1. 영남선교대회의 목적

1) 감리교회의 한국교회부흥운동 100주년 사업

한국교회가 부흥100주년(1907년)을 맞이하는 2007년의 감리교회의 중심사업의 하나로 영남선교대회를 개최하여 감리교회 부흥의 재도약을 이룩함.

2) 영남선교대회는 호남선교대회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가장 취약한 삼남지역의 감리교 선교에 불을 붙이는 선교대회가 되어야 함. 국내 선교의 지경을 전역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듦.

3) 영남선교대회의 추진 근거는 제 27회 행정총회에서 희망프로젝트로 제안되었고 결의되었다.

2. 영남선교대회 준비

영남선교대회는 지난 호남선교대회처럼 총회입법차원의 부담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본 선교대회는 2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1) 2007년 상반기에 (사순절과 오순절 기간) 서울과 중부권의 대형교회들 중에 100개 교회(혹은 지방)와 협약을 맺어 그 교회(혹은 지방)의 전도팀을 결성하여 100개의 영남지역에 지속적으로 전도역량을 투입하는 것이다. (차후에 각 지방과 협의하여 영남지역에 전도와 봉사지도(맵)를 작성하고자 한다.)

2) 후원팀(사회봉사팀과 그 활동)

2007년 1월부터 각 교회나 지방별로 취약한 영남지역에 구체적으로 노력봉사와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인 대민봉사활동을 지원한다. 군이나 읍면 단위에 지역아동센터 건립, 아동도서관 건립, 헤비타트 운동(규모가 큰 경우) 어려운 가정에 도배나 주택수리봉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감리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행사를 위하여 2007년 6월까지 목표액(1천만원 이상)을 선정하고 기금을 교회와 선교회별로 모은다. 각 교회별로 바자회와 기타 선교기금사업 실시

3) 전도팀

100개교회의 100개의 전도팀과 협약을 맺어서 선정된 각 지역과 서로 중보기도를 하고 그 지역을 수차례 답사하고 전도의 전략을 짠다. (가장 적합한 전도방법 찾는다.)

각 전도팀의 대표를 연회와 각 지방에서 초청하여 구체적인 전도방법을 협의하며 영남지역의

전도열기를 고취시킨다.

3. 영남선교대회

- 1) 일시 : 1차안: 2007년 6월 29일(금) 2차안: 2007년 8월 24일(금) 양일중 택일
- 2) 장소 : 미정(3만 명 이상이 들어갈 체육관이나 운동장)
- 3) 조직 : 총회차원에서 조직한다. (2004 호남선교대회 조직표 참조)
- 4) 예산 : 2006년 총회 예산소위에 반영할 것

4. 영남선교대회의 목표

- 1) 감리교회 전도의 역량 결집과 확장을 통한 300만전도운동의 계속추진
- 2) 사회봉사를 통한 감리교회의 대 사회적인 이미지 제고(감리교브랜드를 형성함)
- 3) 교회개척 20개(국내선교의 취약지역에 대형교회들이 집중하여 교회개척, 아동도서관 개관, 지역아동센터 개원을 통하여 선교의 문을 연다.)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감리교회

전준구 목사(대전 가양교회)

1. 서언

- 1) 감리교 ‘희망 프로젝트’의 핵심: 영적각성, 부흥회복,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 2)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 ‘전도운동’, ‘상생목회’와 함께 3대 부흥전략의 하나임.

2. 기도와 말씀운동의 중요성 재인식

- 1) 기도와 말씀은 목회의 중심사역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행 6:4)”

- 2) 거룩한 영성(복음적 영성)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딤후 4:5)”

- 3) 부흥역사의 중심부에는 항상 ‘말씀운동과 기도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2).”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7).”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행 12:24)”

* 웨슬리의 부흥운동

* 한국교회의 부흥운동

3.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감리교회를 위한 실천적 제안

1) 목회자를 위한 제안

- ① 설교갱신을 통해 ‘성경적 삶의 원리와 부흥원리’를 제공한다.

말씀의 세속화 위기(대안: 목회자 -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배웠다.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 ② 교회력에 따른 목회일정을 진행하되, 현대적 영성과 삶으로의 연결점을 찾는다.

- ③ 목회자들을 위한 영성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말씀묵상과 기도)

2) 평신도를 위한 제안

- ① '성경 일 년 일독운동' 을 교회적으로 실시한다.

일 년 일독을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교회력, 역사적 연대 등 참조)

평신도를 위한 신구약성경개론을 제작배포

개체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서대학 프로그램' 을 제작 공급한다.

- ② '새벽기도' 와 '금요심야기도회 부활' 을 강화한다.

새벽QT 교재를 발간 배포한다(성경적 관점과 복음주의적 관점)

- ③ 속회모임(소그룹 모임)에서 '중보기도사역' 의 중요성을 강조 실천케 한다.

- ④ 직분중심에서 사역중심의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리교인 양육시스템" 을 고안하고 실시한다. (예 : 새교인- 성장교인 - 사역교인 - 핵심교인)

교재, 장단기 훈련프로그램 제공

- ⑤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 감리교인 필독서 운동(웨슬리 라이브러리)을 실시한다.

3) 토의를 위한 질문

'감리교회의 부흥과 성장' 은 감리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실제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 부흥과 성장이 없는 교회는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

- ① '감리교회의 부흥과 성장운동' 이 부정적 비판을 극복하고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발전하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
- ② 평신도들에게 '교회부흥의 중요성과 책임성' 을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전도운동으로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조재진 목사(제천제일교회)

1. 문제제기

- 1)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짐
- 2) 전도의 효율성
- 3) 감리교회의 특성에 맞는 전도

2. 전도운동에 선행되어야 할 것들

- 1) 목회자의 전도 마인드, 전도비전 세우기 - 신학교, 준회원 교육
- 2) 조직적인 전도 훈련
- 3) 감리교회의 특성에 맞는 전략 개발 - 개인전도, 섬김의 전도, 속회전도

3. 연회, 지방, 개체교회 전도운동

- 1) 연회별 전도훈련, 전도운동 - 목회자 전도훈련
- 2) 지방별 전도훈련, 전도운동 - 지방별 전도대 구성
- 3) 개체교회별 전도운동 - 배가운동
- 4) 시범교회 운영

4. 감리교회 소그룹 운동(속회)를 통한 전도운동

- 1) 속회에 대한 개념 정리
- 2) 속회 전도 전략 개발
모델링
지도자훈련
- 3) 시범교회 운영

5. 전략적 개척교회 설립

- 1) 미자립자립 지원, 개척기금

- 2) 중·대형 교회와 연계한 전도운동
- 3) 미자립교회 전도전략 개발 - “연합 전도”

6. 차세대 교회 인 육성

- 1) 유학생 선교대회
- 2) 대안학교
- 3) 학원선교 -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 4) 스포츠 선교
- 5) 기타 기능별 전도운동

상생목회로 목회자에게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지성래 목사(삼선교회)

“METHODIST” 아홉자의 머리글자를 이용한 “상생목회부흥을 위한 아홉 고리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도시와 농어촌, 역사 깊은 교회와 개척교회, 크게 성장한 교회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목회자를 중심으로 상생(相生)하는 목회 풍토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1. Meaning – 의미 있는 사역 목표 정하기

신학 입문시기의 꿈과 소명을 계속하여 갈고 닦아서 평생 사역의 궤도를 정하고 한 단계씩 자기 성장과 자기 사역 현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순교적으로 계속해야만 한다. 평생 목회의 서원을 하였으면 체력, 지력, 영력, 인화력, 조직 행정 관리 능력 등을 부단히 다듬어 나가지 않으면 꿈만 꾸다가 미는 수도 있다. 지역교회, 특수 목회, 국내 목회, 해외 선교 현장 목회, 도심지 목회, 농촌 혹은 도서 목회 등의 구체적인 목회 방향의 초점을 신학 초기와 목회 초기부터 정선했어 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목회자다운 목회자로서의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Execution – 실행력 키우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지식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탁월한 영성이 중의 한 사람이요 현장 목회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도와 사회 개혁을 위해 무엇인가를 날마다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한다.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의 탈진 현장에 드러누워 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다윗처럼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이제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다윗형” 목회자로 변해 가야 한다. 그래야 골리앗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수 있게 되는 법이다. 물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날마다 부지런히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발전 목회의 비밀이다.

- 1) 지방별로 현재의 교역자 회의를 활성화하여 상생 목회의 열매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일 때마다 실행한다.(동질 목회 여건에 있는 목회자의 선진 목회 사례 발표 등)
- 2) 각 지방 내 교회의 목회 실태 진단을 통한 상생 목회 접근 방법과 가능성에 대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방별로 일정한 기간동안 행정력을 동원한 “상생 목회를 위한 교회와 목회 진단”을 통해서 전국교회를 네트워크한다.(도울 수 있는 교회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

- 3) 예배, 설교, 애경사 집례, 전도, 상담 및 치유, 목회자의 가정(부모, 부부, 자녀), 건강, 어학 능력 등 전반에 걸친 목회자의 자기 향상 및 목회 현장의 배가 부흥을 향한 생산적인 목회 전략을 모색한다.
- 4) 목회자 자신에게 있는 “우울증, 열등감, 좌절감, 패배감, 낙담, 포기, 실의” 등의 무덤 돌 옮기기를 위한 상생 목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 5) “나도 할 수 있다” 혹은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는 긍정적 목회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목회”의 믿음을 갖도록 자신감을 계속하여 불어 넣는다.
- 6) 매년 지속적인 “성경학교”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하여 지원하는 교회와 지원 받는 교회의 관계를 돈독하고 사역의 열매를 극대화해 나간다.(교회와 지원 교사와 후원 팀의 지속성을 유지한다.)
- 7) 농어촌 혹은 특수 지역 목회 현장에 중장기 목회를 헌신할 만한 목회자 후보를 발굴하여 양성하고 지원한다.
- 8) 세미나, 도서 구입 등 수혜가 필요한 교회의 목회자의 연장 교육을 위한 후원 계획을 상설화한다.
- 9) 수혜가 필요한 교회와 목회자 및 그 가족의 건강 검진 및 건강관리 후원 계획을 상설화한다.
- 10) 수혜가 필요한 교회를 위하여 악기, 성구, 가전제품, 냉난방용품, 방송기자재 등의 재활용을 위한 정보 교환 창구를 일원화한다(기독교 타임즈, 교단 홈페이지 이용)

3. Training – 훈련받고 훈련하기

4. Humanity – 인간성 가꾸기와 성품 개발하기

5. Organization –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기

6. Discipleship – 제자도 세우기

7. Interest – 주어진 삶에 흥미(興味) 유발하기

8. Strategy – 전략 개발하기

9. Target – 목표 설정하기

세계선교

이원재 목사(선교국 총무)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 이것은 ‘희망 프로젝트’의 3대 목표 중 하나이다. 그만큼 세계선교 문제가 희망 프로젝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를 통해 한국 감리교회의 자부심과 저력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교회 속에서 한국 감리교회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제 전 세계의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21세기 세계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세계선교의 주도적 흐름이 미국이나 유럽의 제1세계 교회들에서 한국을 위시하여 중국과 인도, 라틴아메리카의 교회들이 중심이 된 제3세계 교회들로 옮겨가고 있다. 이미 한국교회는 12,000 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제 2대 선교사 파송국가가 되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현재 전 세계 71 개국에 626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 (2006년 선교국 국외선교부 자료에 근거함, 원주민 대상 선교사), 교민선교 목회자들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국(GBGM)을 비롯하여 전 세계감리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선교협력을 요청해 올 만큼, 선교적 위상과 역할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선교 상황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한국 감리교회에 주신 축복이며 동시에 중대한 기회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앞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감리교회”라는 슬로건 하에서 세계교회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복음의 세계화와 세계선교의 영향력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동시에 변화하는 세계선교 환경과 점증하는 사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도 세계선교의 구조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선교사 훈련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개체교회들의 세계선교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세계선교 희망 프로젝트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1. 세계선교 협력 강화와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 확립

1) 목적과 취지

오늘날의 글로벌 시대는 과거의 일방적 선교(one way mission)에서 쌍방적 선교(two way mission)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선교의 패러다임도 ‘타자를 위한 선교’(mission for others)에서 ‘타자와 함께 하는 선교’(mission with others)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교회들과 동반자적 협력선교를 강화하고,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선교적 영향력과 효율성을 확대해 가고자 한다.

2) 주요 추진 내용

- ① 세계교회들과의 선교협약을 확대한다. UMC를 비롯한 선교지 교회들과의 선교협약을 시대에 맞게 갱신하고, 선교협력 분야를 확대한다. 또 영국감리교회, 캐나다 연합교회를 비롯하여 세계교회들과 새로운 선교협약을 추진한다.
- ② 아시아 감리교회협의회(AMC)에서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아시아 감리교회들 간의 선교교류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③ 중국교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선교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다.
- ④ 선교사 파송 시 선교지 교회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적 파송을 더욱 확대한다.

2. 선교사 관리 체계 확립과 세계선교부서의 확대 및 독립

1) 취지 및 목적

한국 감리교회가 21세기 세계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선교사 관리 및 후원 구조의 획기적 변화와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 교회와 개 선교사 중심의 체제를 지양하고, 통일된 창구와 네트워크화 된 선교구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2) 주요 추진 내용

- ① 선교지별(나라별, 지역별)로 선교사 관리 시스템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선교사와 후원단체를 묶어 창구 통일을 추진한다. (예, 캄보디아와 아시아 선교회)
- ② 현재 임의단체인 세계선교협의회를 장정 상 공식단체로 양성화하여, 선교국과 협력하면서 선교사 후원과 복지, 관리를 중점 담당하도록 발전시킨다.
- ③ 선교사 훈련, 관리,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내년 입법의회에 상정하고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 가동한다.
- ④ 세계선교 전담 부서의 확대 및 독립을 추진한다. 현재 주요 타 교파 대부분이 독립되어 있다. (별지 첨부자료 참조)

3. 선교자원 개발과 지도력 강화

1) 목적 및 취지

사람을 키우는 것은 미래 세계선교의 성패가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다. 한국교회 지도자 200명에 대한 설문조사(World Inquiry)에서도 세계선교 동력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도력 개발과 선교자원의 극대화를 꼽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그리고 다각적인 선교사 자원을 양성하

고, 또한 선교 현지의 지도력 개발을 통해 현지 교회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주요 추진 내용

- ① 선교사 훈련 과정의 단계적 통일과 집중훈련 강화: 현재 7개로 분산되어 있는 선교사 훈련원을 단계적으로 통일한다. 우선 훈련 커리큘럼을 단일화하고 상호 연계교육을 확대하면서 통합된 훈련원을 향해 나간다. 아울러 선교국에서 실시하는 집중훈련을 강화한다.
- ②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의료, 어린이 교육, 행정, 기술, 스포츠, NGO 사역자 등) 제도를 활성화 하고, 단기 선교사 제도를 도입한다.
- ③ 현지인 지도자 훈련과 양성 프로그램(현지 교육과 한국 초청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와 조선족 가운데 유망주를 교육, 재 파송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 ④ 해외 교민 선교를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해외 유학생과 이민 2세를 세계선교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4. 세계선교 센터 건립 추진

1) 목적 및 취지

선교 120년을 넘어서고, 1000명의 선교사 파송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감리교 세계선교의 요람이요 중심이 될 선교센터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선교사 훈련센터, 선교자료실, 국제회의실, 선교본부와 후원단체 사무실이 종합된 시설로서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감리교회의 숙원 사업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추진 내용

- ① 선교사 게스트 하우스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시설을 갖춘 개체 교회를 파악하고 연결과 소개를 확대하며, 연회와 본부 차원에서도 시설을 확보해 나간다.
- ② 세계선교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감리교회적으로 추진한다.
- ③ 미 연합감리교회를 위시한 세계교회들과도 협력하여 공동 참여를 추진한다.

5. 지역교회의 세계선교 참여 확대 및 선교활성화

1) 목적 및 취지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지역교회다”라는 말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아직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 80%는 세계선교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감리회 개 교회들이 세계선교의 지상 요청 앞에서 개 교회 중심 성장주의를 극복하고 세계를 품은 교회로서 선교 비전과 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주요 추진 내용

- ① 개 교회 선교활성화를 위해 선교교육, 선교 기도운동, 선교지 단기 방문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 ② 개 교회에 감리교회 세계선교 현황과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본부와 연회, 지방 차원의 세계선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 ③ 세계선교협의회 멤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세계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들의 네트워킹과 협력을 확대한다.

* 참고자료: 주요 교단 선교현황 및 정책 비교

	기감	기성	예장(통합)	예장(합동)
선교사수	66개국 627명	36개국 129가정 244명	874명(단기선교사 포함)	90개국 773가정 1403명 (단기선교사 포함, 2020년까지 5천명 파송 목표)
선교본부 시스템	본부 선교국 3명 (부장 1, 과장 1, 서기 1)	13명 (국장 1, 직원 9, 훈련원 3) 중앙집중적 (총회해외선교위원회)	6명 (총무 1, 간사 3, 직원 2) 중앙집중적 (총회세계선교부)	중앙집중적 (GMS, 곧 총회세계선교회 산하) 이사장 산하 본부총무, 사무총장, 선교연구훈련원장 3인 외 30명 (본부 선교사 12, 자원봉사 6명 포함)
선교사 자격 훈련과정	위탁 훈련원 1년과정과 선교국집중훈련 1주, 23-60세(평신도 55세)	40세까지 지원가능 1차 시험(성경, 영어, 면접)후 7개월 훈련(4개월 국내, 3개월 해외)	지원, 견습, 단기, 정규선교사 기본훈련과정 각 12주, 선교업무교육과정 1주, 3주	40세 미만 선발, 단기선교사(1-3년) : LMTC (전국 28개 지역, 80분X 48회, 해외 2주) 정규선교사 (4년 이상) : GMTI (12주 또는 5주, 해외 2주)
선교사 파송 과정	훈련-인준심사-수련선교사-인수-파송예배	선발-훈련-안수식-모금활동-파송예배. 선교사 전략적 파송 강조	'선교지 요청에 적합한 자 파송을 명문화. 인선-업무교육-파송식-현지수습선교사(2년)-현지선교회에서 임명식	훈련-인준과 임명 (3중면접, 임원회에서 최종임명) -오리엔테이션(2박3일)-임명식(안수)-파송예배(개 교회)
선교사 관리와 복지	지역및 나라별 선교사회, 선교국 주관 하에 연회, 개교회(단체) 공동관리, 보험가입, 건강검진지원, 안식년 제도	선교비 모금기준(250-350만원) 일정액 행정비, 복지비 예치, 선교사 안식관(18채) 완공	기본생활비 1800\$×15개월. 보험, 총회연금 가입. 은퇴관 건립추진.	해외선교지부(16개) 사회복지법인설립 (은퇴선교사복지) 게스트하우스(19세대) 선교본부센터(화성)

민족과 역사를 향한 감리교회 지도력 강화

조정열 목사(아현교회)

1. 들어가는 말

1) “민족과 역사를 향한 감리교회의 지도력 강화”는 <감리교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을 향하여 책임적인 교회로서의 감리교회를 드러내고 이 민족을 향한 감리교회의 지도력을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2)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감리교회의 영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감리교회의 사회적 도덕성을 회복해야 하고,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하나의 운동이 되어 시간에 따라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연대함으로 운동의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 이를 이를 전략으로 3M(Methodist, Mission, Movement) 네트워크 실천을 제안한다.

2. 이끄는 말 : 3M 네트워크

1) Methodist는 감리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① 감리교회 자체가 자기 성결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전에는 지도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건강한 목회를 실천하는 새로운 목회윤리를 제시하고, 사유화되고 있는 목회를 과감하게 교회지도자 중간점검(PPR), 교회재정운영공개(모범양식) 등을 과감하게 객관화하여 감리교회의 “신실한 사람들” 됨을 보여야 한다.

② 아울러 교회 목회자들의 질적인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신학교육뿐 아니라 목회자 후보자에 대한 자질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2) Mission은 미래에 대한 감리교회의 에너지를 집중시킬 사명을 찾는 것이다. 세가지 사명을 제안한다.

① 첫째는 교회개혁에 대한 사명이다. 교회는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쟁점에 와 있다. 연륜은 교회를 관료적 사회로 만들고 있고, 문명기술사회는 복음이 없는 경영만으로도 교회성장을 논하는 교회를 단순한 기능적 사회로 만들고 있다. 교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사유화를 극복하는 교육과 함께 제도적으로도 보완하도록 한다.

② 둘째는 사회적 소외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회복하는 것이 사명이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가 시대적 매력을 상실한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의 대표적 소외계층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온 감리교회가 함께 교회적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현 사회의 대표적 틈새 소외계층은 “쪽방주민”(노숙인은 아직 아니고, 쪽방에서 기숙하는 계층)이므로 그들을 지원하는 부가서비스(빨래, 자녀돌보기, 후드마켓)들을 개발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희망 주는 일을 제안한다.

③ 셋째는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일을 사명으로 삼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면으로 모색한다. 하나는 환경과 생명회복의 사안이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회복을 위해, 자연환경의 파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사명이다. 환경과 생명회복의 문제는 21세기의 최대의 교회와 사회의 과제를 인식하고 감리교회는 이 사명 앞에 바로 서야 한다. 또 하나는 사회의 어두운 문화를 대적하는 일이다. 백년 전 초기 감리교회가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것은 사회적 관행이었던 술, 담배, 도박, 축첩 등의 문제를 죄라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시대의 어둠의 문화를 죄로 인정하고, 과감한 퇴치를 선언하며 건강한 생활문화를 정착하는 노력을 사명으로 한다. 새벽문화에 익숙한 교회문화를 잘 활용하도록 한다.

④ 넷째는 평화통일의 과제이다. 한국에서의 최대현안은 분단된 조국이다. 북한 핵실험을 통하여 이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감리교회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정신을 따라, 한 반도에 평화를 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서부연회를 중심으로 지구촌 평화운동에 앞장서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3) Movement은 감리교회 정책을 운동으로 만드는 단계이다.

① 운동이 되려면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성. 상황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개혁적이어야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 모든 교회 사업에 일과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이 되기를 기대하며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운동을 제안한다.

② 가장 중요한 운동은 교회개혁운동이다. 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지도력은 생성되지 않는다. 2007년은 평양부흥운동의 백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일 490주년이 되는 해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을 향하여 교회개혁 10년 운동을 벌일 것은 제안한다.

③ 교회개혁은 피할 수 없는 교회의 과제이다. 관료화되고 있는 교회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제왕적 목회를 지향하는 잘못된 목회를 회개하는 새로운 목회자의 정신을 만들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보전과 회복에 힘쓰는 건강한 녹색교회운동은 현 시대의 절체절명의 대내외적 인 사명이다.

④ 건강한 녹색교회 운동은 건강한 교회운동으로 건물보다는 공동체중심으로, 교회중심에서 주민친화적 교회로, 사람중심교회에서 자연화 환경친화적 교회로, 교리중심교회에서 하나

님 마음을 담은 교회로, 제도중심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자유하는 교회로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 ⑤ 감리교회는 이 운동을 KNCC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가톨릭 교회와 함께 교회일치를 꾀하고, 그들과 “교회의 날”을 새롭게 제정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운동을 만들어 교회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꾀하도록 한다.
- ⑥ 아울러 NGO단체들과 연대하여 밤 문화를 대적하는 건강한 생활운동을 만들어 시대의 문화와 정신을 변화시키는 모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새벽문화를 갖고 있어 건강한 생활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
- ⑦ 이 밖에도 한국 기독교의 배가운동인 2천만 구령운동을 제안한다. 이는 평양부흥운동 후에 있었던 백만구령운동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으로 부흥 백주년 운동 후를 펼칠만한 운동이다. 이와는 달리 삼일운동은 한국감리교회의 위상을 새롭게 한 중요한 기념일이니 그 전통을 잘 살려 삼일운동 백주년을 기념하는 2019년을 향하여 한걸음씩 걸어가야 한다.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며 민족운동의 구심점이었던 감리교회를 그 시대에 새롭게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4) 그리고 네트워크 연대해야 한다.

- ① 이 시대의 화두는 연합과 연대다. 목적이 같은 교회와는 연합하고, 목적이 다른 단체와는 연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교회와도 연합이 필요하지만, 사안별로 NGO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감리교회의 지도력을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회안의 지도력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 감리교회의 네트워크와 그 밖의 가능성이 있는 몇가지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 ② 가칭〈감리교사회봉사단〉 출범과 〈희망의 집〉 네트워크은 감리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할 뿐 아니라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실천하던 감리교회의 사회봉사와 복지사업을 감리교회 전체 성과로 묶어낼 수 있다면 감리교회의 영향력을 배가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③ 에큐메니칼 네트워크; KNCC 안에서의 지도력은 그런대로 확보되어 있지만 KNCC의 사회적 영향력은 이전 같지 않다. 2013년 WCC유치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교회에서의 감리교회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 ④ NGO시민단체와의 연대; 사회적 과제인 환경 회복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관심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지혜이다. - 경실련, 기윤실, 기독교환경운동, kncc, 에너지 전환 등
- ⑤ 지역사회의 지도력 강화; 지방행정단위에서 지도력 회복을 위해 거점교회를 중심으로 연대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집중하여 돌아보는 일에 관심을 둔다. 지역사회 지도력을

위해서는 장기목회가 필수적이다.

- ⑥ 민주평화통일시대를 위해서는 서부연회를 중심으로 연합한다. 통일만을 기다리지 말고, NGO단체와 연대하여, 직. 간접선교에 미리 참여한다.
- ⑦ 카토릭과의 연대를 위하여; 추기경과 감독회장과 교환설교를 실행하되 특히 1월에 있을 <교회일치 기도주간>과 3월의 <세계기도일>을 활용한다.
- ⑧ 21에는 여성이 주목받는 시대이다. 여성운동은 감리교회의 큰 전통이다. 이들을 격려하여 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돕는다.
- ⑨ 고령화 사회 지도력을 위해 원로목사. 원로장로의 열정과 지도력을 활용한다.
- ⑩ 미래의 지도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 영어선교대회(MK, PK)
- ⑪ 광화문소리 만들기 - 시대를 향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목회 패러다임을 만들어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참여한다.

3. 지역사회 지도력을 만든 모범

- 1) “효성동을 예수 사랑으로...” - <꽃마을 효마을 교육마을운동>
 - ① 마을축제-담장허물기, “대우실직자를 위한 기도회” “계양구유해환경개선운동”
 - ② “효성동마을의제21” “계양의제21” “인천희망21”
- 2) 성문 밖 첫 교회로서의 아현교회
 - ① 지역사회 조사와 추석심방 그리고 북아현동 크리스마스
 - ② 북아현동 교동협의회와 마을공동체 그리고 2007년 가구축제
- 3) 모델이 되고 있는 중부연회 사회봉사단
 - ① 웨슬리 사회봉사단을 조직하여 재난 구호에 적극 참여하고 집 지어주기 등으로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갱신하고 있다.
- 4) <희망을 실천하는 서울연회>
 - ① 서울시장 방문과 희망의 쌀 나누기; 연회감독 이취임 화환을 “희망의 쌀”로 바꾸자는 캠페인에 2천만원을 모아 쪽방인들에게 나눔으로 희망을 실천하였다.
 - ② 금번 성탄절에 본부는 외국이주민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행사를 계획한다.

4. 감리교회의 희망프로젝트와 관련하여

- 1) <감리교 사회봉사단>과 <희망의 집> 네트워크
- 2) 감리교회 희망투어
 - ① 사회봉사단 출범

- ② 희망의 집 개소식. 인증식
- ③ 사회적 소외계층 위로 방문하기
- ④ 지역교회 지도력을 통합하기
- ⑤ 지역사회 지도력과 연대하기
- 3) 영남선교대회(영적 각성실천대회) - 2-3일 대회
 - ① 영적 각성실천대회
 - ② 감리교사회봉사단전국대회와 희망의 집 네트워크 출범식
 - ③ 소외 된이 희망주기행사 - 쪽방사람들 “경주 여행”
 - ④ “희망목회포럼” - 목회패러다임 세미나, 전도 컨퍼런스, 스포츠 선교행사.
- 4) 기타
 - ① 홍보대사/ 엠블럼/ 감리교칼라/ 감리교회 휘장 개선
 - ②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아시아선교대회

감리교회 사회봉사 일체화

권영규 목사(논현교회)

양극화, 고령화, 핵, 환경파괴, 가정해체, 성문란, 사이버 도박 등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교회는 더욱 지역 사회(Community)에서 지역 교회(Community Church)로서의 존재 의미와 다양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교회는 지역 사회와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고 성서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회 현장에 부합되는 전문적 선교 방법을 제시하고, 분야별 선교 전문가를 육성해야 하며, 교회는 지역 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지역 교회 간 협력, 일치 및 연합 운동을 강화하여 공동체 형성과 전인적 구원을 성취해야 한다.

‘감리교 장단기 발전 위원회’에서 입안하고, 제27회 총회에서 결의된 감리교 희망 프로젝트는 한국 기독교의 영적 쇠퇴와 급격한 사회 영향력 감소 및 사회적 고립으로 위기에 처한 교회의 자기갱신의 몸부림이다.

한국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교인 수 감소시대를 맞고 있다. 정부 통계청 종교인구 조사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인 수는 14만 4천명 감소했다. 이런 교인 수 감소 추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앞으로 계속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욱이 한국교회의 적극적 전도와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상대적으로 전도에 소극적인 타 종교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교회의 쇠퇴는 교회의 전도방식과 종교적 열심에 대한 반성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반성과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감리교 희망 프로젝트’는 이런 맥락 속에서 입안되었고, ‘감리교사회봉사 일체화를 통한 전도환경 조성’ 또한 감리교 희망프로젝트의 주요 의제로서 한국교회의 현 상황에 대한 감리교적인 반성과 대안의 모색이며 ‘감리교 사회봉사 일체화’는 교회의 영적 각성과 교회의 부흥과 세상에 대한 교회의 선도역량을 확보해서 감리교회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감리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감리교회의 노력이다.

이런 감리교 사회봉사 일체화는 감리교사회봉사단의 조직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이론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하고 반성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하듯 ‘감리교사회봉사단’은 감리교 사회봉사 일체화의 제도적 표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직될 감리교사회봉사단은 감리교 사회봉사의 일체화를 위해 감리교회의

전국적인 범위의 사회봉사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방향성 체계적 네트워크 구성이란 원칙을 갖고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1.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여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적으로 감리교 사회봉사단을 조직한다.

- 1) 이미 개체교회별로 전개해 온 사회봉사사업을 감리교 전체의 조직체계에 따라 하나로 묶는다.(정부 행정체계도 함께 고려한다)
- 2) 연회와 지방회가 주체가 되는 조직이다. 지방별로 조직을 체계화한다. 연회와 지방봉사단을 중심으로 사업(봉사학교, 시민봉사, 재난구호 등)을 전개하고, 본부는 정책 입안, 조직통합, 연회 봉사단 사업 및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 3) 새로운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봉사활동을 감리교사회봉사단이란 이름으로 통합한다.
- 4) 감리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훈련하고 네트워크화 한다.
- 5) 개교회의 사회봉사, 복지선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봉사) 담당목사제를 도입하고, 감리교회 사회봉사의 네트워크를 위한 코디네이터로 감리교 본부에 봉사단 총 간사, 연회별 봉사단 전임 간사(연회형편에 따라)를 둔다.

2. 국가와 민족에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가 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사역에 감리 교회와 성도의 능력을 봉사단을 통해 하나로 모은다. 감리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의 성과를 전체 감리교회로 종합 한다.

- 1) 감리교사회봉사단 활동은 교회와 지역에 따라 전개하되 조직과 사업통계는 감리교 전체의 성과로 수렴하여 전체 감리교회의 이미지를 높인다. 즉 사회봉사운동 전개에 있어 개별주의(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전체 감리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으로 전개한다.
- 2) 평신도들의 리더십을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를 주는 지도력으로 발전시킨다.
- 3) 공통의 규약인 감리교사회봉사단 정관과 비전 선언문을 작성한다.
- 4) 개체교회와 지방 사회봉사단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신뢰를 형성하며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간다.
- 5) 지역봉사센터, 사회안전망, 국내재난구호기관에 참여하며 지역 행정기구와 연계하여 활동한다.

3. 감리교회 사회봉사의 특화사업으로 희망의집, 희망의 보금자리 운동을 실시한다. 즉 감리교회의 사회적 성화- 섬김과 나눔의 영성을 회복하고, 이혼율 급증, 출산율 감소, 양극화로 해체되어가는 가정을 회복하는 운동을 감리교회 사회봉사 아이টে으로 설정하고 실천함으로써 실추된 감리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한다.

- 1) '희망의 집 운동을 실천한다.(감리교회가 운영해 온 사회봉사 시설과 복지기관으로 감리교 인증을 부여한 기관이나 건강한 가정육성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가칭) 같이 특화된 기관을 희망의 집이라고 한다. 즉 해체된 가정을 살리는 집-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쉼터), 이혼율감소, 저출산방지, 아동(노인)학대 방지센터 등)
- 2) 기존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화 하고 발전시켜 전체 감리교회의 성과를 축적한다.
- 3) 희망의 보금자리 운동을 실천한다.(재난 지역에서 집 지어 주는 사업을 전개해서 고통 받는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모형을 개발하여 감리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를 높인다.)

이상과 같은 원칙과 지침을 따라 감리교 사회봉사의 일체화를 도모하여 기존의 사회봉사활동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을 합리화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집중력을 강화함으로써 감리교회의 건강한 대사회 영향력을 확대하고 감리교회에 우호적인 전도환경을 조성한다.

감리교사회봉사의 일체화는 감리교회의 전도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주민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바뀌었음)하는 사회변화 추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교회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